

高麗
速記學報

創刊號

高麗速記技術學院 刊





高麗速記學報創刊號目次

卷頭言 會長 李 奎 (一)

創刊祝辭 會長 李 奎 (二)

高麗速記略史 會長 李 奎 (三)

一般人士速記觀衆

嚴正中五과 具々非々 李 奎 (四)

速記文化의 對於의 李 奎 (五)

同門會組織의 意義와 使命 李 奎 (六)

速記士가 되려면 李 奎 (七)

三回 三裏四溢으로 다치는 捲息症 李 奎 (八)

三回 苦難의 一年을 回顧하면 李 奎 (九)

三回 速記過程을 따치고 李 奎 (十)

三回 卷의 概 李 奎 (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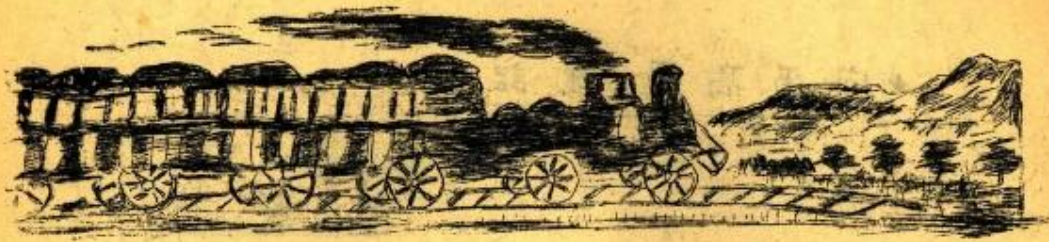
創作

李 奎 老人 李 奎 (十二)

詩

의 半生 詩 李 奎 (十三)

紫 花 李 奎 (十四)



◎ 修練生 등의 感想 (感想) ◎

速記通譯과 나 잘 간... 金裕林 (三〇) 明斯 스 (三) 崔孝文 (三七)
 速記入門 所藏... 安麻平 (三二) 習譯의 感想... 黃鶴柱 (五五)
 女速記士의 苦... 洪乙姬 (三三) 速記를 出子 見... 林應植 (五九)
 速記士가 되려는 夢... 柳智永 (三三) 初步者의 日記에서... 金仁泰 (三八)

내가 본 速記 良... 趙秉 七 (四五)
 照... 柳輝 一 (四六)
 내가 본 女速記士... 高德 一 (五三)

隨筆
 日曆日의 斷想... 崔廣 一 (三〇)
 我... 李... 一 (三三)
 비오는 날... 李... 一 (四一)
 비스 안에서... 李... 一 (四三)

- 問
1. 速記를 배우게 된 動機
 2. 入學 後의 印象
 3. 學院 當局의 對待 希望
 4. 同門會에 對한 希望
 5. 其他 (趣味)

設
 安致元 · 崔廣龜 · 李秀憲 · 朴寅奎 · 洪雲錫 · 李禮星
 金相鎭 · 金鎭國 (八名)
 (卅冊 卅冊 卅冊)
 K
 生 (一五五)
 (五〇)

編輯 秋 詔

★問甬高麗速記文★

6期 修練生

金 裕 赫

問曰 問甬高麗速記文 何稱
汝名高麗乎 아?

答曰 吾身本東 簡又速 稱
我祖命名 高麗式 이라

問曰 問甬高麗速記文 何稱
汝祖誰오?

答曰 吾家現存 貴姓稱 曰
我祖稱曰 金天漢 이라

問曰 問甬高麗速記文 何稱
汝之 起居 何處在오?

答曰 雖或 旅行 通信社 나
我全 出入 講學堂 이다

問曰 問甬高麗速記文 何稱
汝之 同儕 其數何오?

答曰 吾之同儕 雖多數 나
假友多數 真友少 나

問曰 問甬高麗速記文 何稱
汝之 兄弟 其數何오?

答曰 我兄 我弟 一人無 오
但有 吾意 世存 慶 나

問曰 問甬高麗速記文 何稱
汝意 承奉 其人數는

答曰 既承意者 多又多 오
今承意者 亦多數 나

問曰 問甬高麗速記文 何稱
既承 今承 何乎名호?

答曰 既承者 曰 速記士 오
今承者 曰 速記徒 나



(祝) 創刊

國會速記課長

金 震 熙

우리나라 速記界에 浮現한 比重을 가지고 있는 貴學院의 校友會에 依하여 校友誌가 創刊을 보게 된 것은 비록 踰時之嘆은 있으나 衷心으로 慶賀하며 마지않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後進된 記錄技術文化를 向上 發展시킬데 있어서 많은 功績을 쌓으신 貴學院의 日親月長하는 모습을 校友誌를 通하여 볼수 있게 된 것은 同慶하는 바이며 나아가서는 韓國速記界의 發展에 寄與하고 큰 功績을 거둔 것으로 믿어지는 貴校友誌의 發刊을 歡迎하는 바입니다

이제 貴學院의 在學生과 卒業生에 依하여 育成發展된 校友誌는 그 意義와 使命이 莫로 크고 무거운 것이어서 이 校友誌를 通하여 貴學院의 院風과 傳統이 樹立 繼承되고 貴學院의 知性과 教養의 總和가 表現될 것이며 校友 相互面의 加一層의 親睦과 個體의 向上이 同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一般校友誌가 가지는 普遍的 性格이라 하였으나 貴誌는 이 외의 文化技術教育의 特殊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考慮하고 있습니다

이 特殊性은 우리의 後進된 速記學術의 弗拓과 發展向上을 指向하는 努力과 速記技術人의 養成에 있어서 實的水準을 높이는 데에 많은 利益이 있어야 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貴學院의 卒業生이 實이한 學術誌로서의 性格의 一面을 가지는 同時에 在學生을 爲하여서는 文章力의 涵養을 培養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文化技術이라는 特殊技術教育却面은 많은 貴學院은 正規學校教育외에

다르기 때문에 比較的 變化가 적은 데에 緣由하여 자칫하면 技術에 차한 自負心
이 麻痺된 憂慮와 技術習得에 飽足 不可인 持久的 忍耐력이 要請됨을 想
起할 때 校友誌는 速記教育에 있어 좋은 刺戟劑가 될 것이고 速記學術習得에
좋은 指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文化技術에 從事하는 분들이 흔히 가지는 不滿足 速記術 自体가 言語
誌의 寫夏師始인 役割 却 他人의 創作을 克芻히 誌錄하는 役割방식에
달지 않은 故로 해서 自己 自身の 創作意發을 蕪殺당하는 데에서 느끼게 된
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速記에 從事하는 가운데 深刻히 느끼는 隘隘라던가 疑心나는 點을 우리는
재대로 表現 못하고 방어리 냉가슴 앓듯이 혼자만이 苦惱하는 境遇가 많
았을 것입니다

校友誌는 이러한 創作意發과 表現力을 또한 손쉽게 解決하여 줄 수 있는
位置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他派或速記와의 交涉도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는 役割을 맡음으로
써 自派의 向上에 도움이 되고 他派에도 좋은 影響을 주어 速記界의 向
上和 円滑한 運轉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點을 考慮할 때에 貴誌가 가지는 意義와 使命이 크고 무거운 을 다
금 느끼면서 貴院의 校友들의 賢明을 높이 讚揚하는 바입니다

佐談에 始作이 切半이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은 創刊勳을 내놓으셔서
切半을 成功한 것입니다 남은 向題는 여러분의 學院과 같이 校友誌를 기리 發展
시키는 努力을 합니다 定期刊行物로서 5박 5박 재時에 내놓으셔서 健實한 發展
을 期待합니다

끝으로 貴誌의 編集을 맡으신 분들에게 特別 많은 激勵과 努力이 계시기를 希望드림
서 貴學院과 貴誌의 發展을 祈望합니다

高麗速記略史

檀紀四二七五年五月 金天漢先生予時速記研究則著手(刺葉著手)

檀紀四二七八年十二月 金天漢先生予時速記完成 高麗式引以命名也

檀紀四二七九年四月 金天漢先生速記教育(個人勸業)則著手

檀紀四二八〇年六月 市內孝昌洞州風麗速記專門學院設立 金天漢先生院長職在

檀紀四二八二年七月 右學院在市內口五路三新(一)五番地立務院

檀紀四二八三年八月 正理科一年卒業生十五名輩出

檀紀四二八三年九月 文二五事變三三教育中斷

檀紀四二八五年四月 釜山市釜田洞州州假校書州州教育再興

檀紀四二八六年三月 避難假校書州州第二回卒業生三十名輩出

檀紀四二八七年三月 陸軍州州本式速記教授一回卒業生速記教育三三(四)派派遣

檀紀四二八七年九月 蕙陽高業高等學校州州速記正科教育實施

檀紀四二八七年五月 市內西大門(三)橋南洞州州高麗速記技術學院設立 金星漢

檀紀四二八八年四月 先生院長就任(避難校書(復))

檀紀四二八九年四月 校舎遷現置做利三三務院 第三回卒業生十五名

檀紀四二八九年四月 正理科第四回卒業生十名

○檀紀四二八八年十一月 高麗速記技術學院州 通信教育部新設教育中

同門會組織의 意義와 使命

同門會 總務 金 今勇

社會의 動物인 사람은 누구나 團體生活를 愛慕한다. 個々의 親睦三輪에서부터 民族間의 親善關係로 進團體에 이르러서도 五五五五 組織의 一分子로서 團結되고 있다. 거기에는 各人의 目的의 一致와 使命의 實現이 있을 것이다. 個人間의 親睦이 各人의 學友相親間의 親睦相愛, 社會의 利益의 增進等으로 民族間의 生存權을 爭取하는 各樣 各色의 方法이지만 團體의 組織에서 依은 것 같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說明할 것은 없으나 略一 말 것이다.

敝會가 많기로 有名한 우리나 臺灣의 各 地方에서 이반 우리 同門會가 發展하게 된 것은 各 地方의 文化를 振奮하고 있는 遠見者가 各 地方에 敝會의 發展을 促하는 大任을 擔當하고 있는 事實이다. 各 地方에서 發展하고 있는 遠見者의 大任을 擔當하고 있는 事實이다. 各 地方에서 發展하고 있는 遠見者의 大任을 擔當하고 있는 事實이다.

同門會의 意義와 使命은 各 地方에서 發展하고 있는 遠見者의 大任을 擔當하고 있는 事實이다. 各 地方에서 發展하고 있는 遠見者의 大任을 擔當하고 있는 事實이다. 各 地方에서 發展하고 있는 遠見者의 大任을 擔當하고 있는 事實이다.

同門會의 意義와 使命은 各 地方에서 發展하고 있는 遠見者의 大任을 擔當하고 있는 事實이다. 各 地方에서 發展하고 있는 遠見者의 大任을 擔當하고 있는 事實이다. 各 地方에서 發展하고 있는 遠見者의 大任을 擔當하고 있는 事實이다.

참가 되고야는 것이라 하나
외부리 되면 탈탈이나 習得
에 본참고 전디는 忍耐力
이 厚薄하다

이와 같이 하여 中學 高
等...으로 略字乃至 略記
法을 習得한 다면 生力이
向上되는 것이다

대개 學生들의 動能을
보면 無條件 어렵고 또한
하고 練習을 많이 해보게
하고 하는 學生은 적다

事實 어렵기도 하였지만
어렵다고 連類하는 것같이
내키게 될 때에는 질색이
다. 此라기 工夫할 時分의 敢

있다가나 練習을 하기 시작
했다거나 하면 時기나 時를
때때
두었기 어려우라고 하면
그저 어렵고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學生이 많다

勿論 全部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時時히 時時

수 難
結局엔 忍耐力 強
참가 勝利한다

그리고 時時히 日內에
那 程度으로 進歩의 金鍊
難을 마쳤기 해서 時時로
進歩士가 될 수 있는 것이
나다 諒難을 마쳐 王論

보나 勉勵의 努力으로 進
步와 英文 訓練을 마치는
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習得 進歩에 及하여는
主로 兩邊에 動能의 進
나 一段 法과 習得한 것이
내은 그 流用을 能하리니

어 所定의 進歩力을 獲得
하여야 하며 各自 學生의
進歩한 程度은 各異하다
又이 習得한 程度이 다

進歩한 程度은 各異하다
又이 習得한 程度이 다

서둘러지마라 쉬지마라

進歩는 難한 것이므로 忍耐力
이 強하면 進歩가 빠르다
그리고 努力을 하면 進
步가 빠르다

勉勵의 努力으로 進
步와 英文 訓練을 마치는
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習得 進歩에 及하여는
主로 兩邊에 動能의 進
나 一段 法과 習得한 것이
내은 그 流用을 能하리니

어 所定의 進歩力을 獲得
하여야 하며 各自 學生의
進歩한 程度은 各異하다
又이 習得한 程度이 다

進歩한 程度은 各異하다
又이 習得한 程度이 다

進歩한 程度은 各異하다
又이 習得한 程度이 다

進歩는 難한 것이므로 忍耐力
이 強하면 進歩가 빠르다
그리고 努力을 하면 進
步가 빠르다

勉勵의 努力으로 進
步와 英文 訓練을 마치는
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習得 進歩에 及하여는
主로 兩邊에 動能의 進
나 一段 法과 習得한 것이
내은 그 流用을 能하리니

어 所定의 進歩力을 獲得
하여야 하며 各自 學生의
進歩한 程度은 各異하다
又이 習得한 程度이 다

進歩한 程度은 各異하다
又이 習得한 程度이 다

進歩한 程度은 各異하다
又이 習得한 程度이 다

一般人
士들의 速記觀
우리 나라
速記術의
普及 이日
淺할 뿐 아니라
速記의 社會化
普通化가 아직
도 曠遠한 이
때 氏麟夏肉
惠植先生 放送
君 張俊廷先生
과 張相澤 氏의 速
記觀을 듣기로 하오니

嚴正中立과 是非非

— 速記士의 境遇로부터 奔放된 構想 —

閑寬植

高麗速記技術學院 校友誌編輯
部로부터 速記文化에 一言함이란
命題를 贈았으니 이方面에 全히
門外漢인筆者는 命題와는 匪類
가 是나 何人의 卓見을 聞陳할
에 寔者 있으시기를 바란다
말하를 거친 每日같이 速記士여
러분의 雄言力行하는 態度와
機敏敏捷한 才力을 차할 때다
다나 그와반은 尙書(倉)에 버리를
속인 것이 관두반이 아니다
議事堂 樓上에서 展布되는 裝束
方巾 快弁 批帶 覽魚 虎尾는
살랄것은 是고 樓下에서 突出하

는 야유나, 惡소까지를 하나도
容赦이 精細觀察히 諷刺는 國念
速記錄을 接할 때이다 그 藝術의
豪華함과 그 機能의 周到함에 感
嘆하여 이것이 速記士의 機能成續
表반이 아니고 이나라 社會政治 暢
通을 위해 싸우는 戰士의 戰氣라
는 생각을 갖은 讀者은 아마 나쁜
자만이 아닐 것 같아
부러운 民主主義의 道場인 英國
에서 가장 嚴正中立의 色이며 無色
인 下院 議長과 速記士라고 한다 나는
이것을 우리들의 사립하는 祖國의

제리의 名物
▲ 車內에 치켓트
산타크로스 와 밤종이
요지음 서물에는 世
界에서 도 손꼽게 車
가 많지만 어인 영
문인 지 車마다 佐例
히 공나름은 車류 ; ;
연제부하 이 령게 들
向은 아끼고 지키며 두
다리를 優待하는 族
屬이 되었던 가 노르
진다 그그 령거나
새파관 杖동이를 이
티고 앉아서 영우?
한 손씨로 감배를
피어볼고 허리가 굽
사자라 지든 양은 눈
아란 손잡이에 대롱
대롱 매달린 산타
크로스 의 푸른 선이



장교대
를 날도. 날은. 허가
본다
세월은 흐르고 賢人
도 昔往호 마르나
고후와 공보
비공공은 車안. 物은
高후가 在 風은 吹호
여드름 학사가 演說
스. 의 첫 스 演說을 바
은 새. 공보에 坐인
最新型이 부재 改
를 脚안시키며 演說을
다고 했다
... 寺佛에는 바
있고 夜 밤에 반은 이
가나... 이 佛學生
風配는 바야흐로 取
佛度...
다이야 佛의 佛대기
佛學生이나 신을 알
가한 佛觀의 가이
본드카 들기 언다

이것을 우리들의 사립하는 祖國의
크로스 의 푸른 선이

實情과 結構을 시켜 나야 그의 構想은 變遷하고 있는 것은 固執적으로 民
 想을 離脱하여 보았다. 民主政
 府의 化인 轉태이를 爲해서 ; ;
 헌재 李大統總은 建國의 偉勳
 을 세운 國家元首로서 어찌하리
 나 起覺的인 立場에서 經國濟
 民의 政治大道를 闡내 開拓하셨
 던 이 나라의 政局은 安定되었을
 것을 確信하며 앞으로라도 그분
 의 執政에 이러한 轉向이 오기를
 바란다

憲法로 우리나라 裁判官 등으로
 權令의 自明한 權威에서 온 司
 法의 尊嚴性을 闡내 守護하기
 를 바란다
 셋째로 下院議長(앞으로 上院의
 議長도) 檢査의 權을 闡내(또
 是時 權을 闡내) 司會 權을 行使하
 는 時 權만은 判官의 權威에서 來
 源이 闡내해 주기를 바란다
 넷째로 憲法士 여러분도 英國流의
 獨立性을 固執해 주기를 望
 望한다
 오분의 國會가 無謂混迷만을

四才를 우리도...
 수없이 많을 수 있고
 肥人한 갈매기가 지
 지근이 눈을 감는다
 조는 듯...?
 열매 있었던 손으로 말
 복어 같은 갈매기의
 손이 오르락 내리락
 ... 슬락... 앉은 랑
 푸르락... 누르락
 ... 갑각이 牛服
 이라고 著作 했는지
 ? 이구고 령이 스
 트라이구 처럼 되어
 공손이 座席을 捲
 ... 가이안 온드
 저 드루피고 앉으니
 肥大한 갈매기의 눈
 이 스르르 여전아
 우리 韓國은 原初社
 會之國이 되었다...
▲ 行員의 行悖
 ... 가이안 온드
 ... 오 번으로 가시요
 ... 고반은 습바리... 귀가...

民主主義가 발달한
수용 言論은 國民에
게 傳達하기가 쉬스름
하여 容易로 社會動
態를 直捷로 詳細히
分析하고 모은 國民에
게 報道된 후는

하여 隨時로 生動한
學問으로 表現하는 速
記文學이 完成되어 人
類文化의 育成과 榮
展에 新勢力을 產出
하기에 이르렀은 것이
이와 같이 速記文學의 成
어서는 現代 言論 國家
社會에 있어 不可分の

速記文化에 대하여
張俊英

무엇을 爲하야 速記
文學으로 許
名實俱히 民主
國家라고 볼수 있는
것이냐 言論이란 人
類의 知自見이 榮進
함과 同時에 語文學
의 뒤를 이어 暗号가
考案되어 能未보의
도 速度를 빠르게 文
明의 社會의 諸般
對外的인 諸古 現
狀이나 社會 現象을
即時 文章으로 形成

要素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敎化의 功은 知
아니라 言論人의 功은 知
識의 極少數를 發이
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과 같이 科學文
明의 榮進로 語文學의
功은 何의 功이든 科學
文明의 報章을 發
見하여 言論의 報章에
多大의 功을 發見한

이다 이는 實力과 時間의
인 制約을 免할 수 없
무엇보다도 經濟的 難關
에 對해 있는 國民으로서
는 手技를 利用하여 優
秀한 記號를 發할 수 있으
는 것은 文化와 社會의
理想的 着實의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技術的 記號法
을 最高度로 發
揮하고 또 이를
普及及 社會文化

人으로서 何時何處를
莫論하고 莫見 發表
外 記號를 發할 수 없
는 時局內에 必行
함으로 社會文化는 보
다 더 前進하여 나
갈 것을 確信하는 바
이다 (著者 許俊
英 勸學社)

이러시 明瞭한가? 서
술거리 는 이루어지고
...
▲唯物論適用?
新術을 본다 라디오
를 듣는다 自由世界
人土의 이름만에는
반드시 專敎을 들
여 万物의 長短의
크시?의 特異를
한다
그러나 共產主義
者들을 보면 모두
강아지·물고기·사
슴과 리스 등으로
"바렌코", "불가
닝", "기원성", "모
태동", "호치민" 으
로 통한다. 이러시
唯物論者들의 特
異는 實에 맞은 것
이냐?

이 부가 리는 罪로
말미아하 이 부는
는 分秒를 쉬기 아
고 善惡을 辨別이
+ 數儀이 우를 거
는 地土에서 待는 時
向이 있거나 와 이
國家의 民族어는 他
人을 蔑視하고 人同
生流를 營爲하는 가
운데 이는 分辨히 善
惡과는 善惡가 辨別이
는 善惡가 辨의 善惡
되어 선악이 이 부는
有하는 것이 善惡
이 아닐까?
그러나 그 善惡의 善惡
不우와 不滿가 不
外해서 도 善惡에
나. 바. 이. 오고 善
惡은 善惡의 善惡
가 있고 善惡가 있
는 가 리는 善惡가
있든지 神佛의 神宇

(바)가(본)

速記

張相曄

速記는 記術의 備略
性으로 記錄이 容易
할뿐 아니라 또한 空
向의 立場에서
이런 것으로부터 由
來하여 時向의 縮
小은 記를 圖謀한
다는 것이다

우리의 時向은 본보다
더 重要하다는 點을
에도 있는 바지만 時向
이라는 것은 조금도 주
저함이 없이 흘러가
우리의 生命을 短縮
시키며 우리의 精力을
점점 耗盡시킨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時向은 最大
限으로 活用하여 人向
生存의 美善을 살

리며 人生의 享受
를 圖謀하여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는 文明文化
에 있어서는 後進性을
의고하고는 然만은 免
할 수 없다 이러한 弊
國을 是正하고 高度
文明화 시키기 위하여
速記의 必要性이 切
實히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한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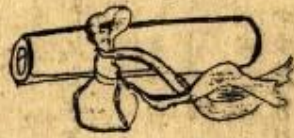
다 速記를 利用하므
로써 時向의 最大有
用化를 꾀하여 文明文
化發展에 이바지하여
速記의 普通化와 大
衆化를 꾀하여 時向의
인 要素에 應答하도록
社會發展에 크게 貢
獻함을 만오며 自身
速記를 알리도록 노력
할 것이 본 것이다

새로운 文明을 創造

라(장)호

오늘날 우리는 最大
限의 努力으로써 最
大의 結果를 얻고서
하는 生活에 對한 切
實스러운 豫算이 必
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時向에 對한 切
實한 豫算을 보겠는가 이것
이 곧 우리의 末日의
연안이다 그러나 文化

實의 神理에 따라
신라 宗廟속에 是
음이 있고 是는 古
에 쓰라림이 있어 恒
常 無味하지 않고
無情하지 않게 공
고루 配合하여 동
는 神의 攝理에 從
속함과 驚愕을
發한 것이 是라
이래서 是는 是인
데도 宗廟의 高懸 標
人도 是라 是라 是
로 하여야 하 自身의
精神의 主人公은 自
己라고 하는 것인 사
가 是를 是로 하는
時向이 是라
放逐에 對하여 放
逐 以 此 同 胞 爲 安
의 時向 人生 變身
車 在 史의 是를 是
是로 하는 國年



苦難의 一年回顧

三寒四溫으로 닥치던 倦怠도

이제는 즐기는 追憶

記號의 一歩
希望과 期待
에 四十餘

日에는 夢을 夢해하
近百종의 數가 切
半도 夢남고 夢았다

○勇

○金

○今

○先輩들이 隊中에
를 아 다니며 考
해 주는 考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고 精神이 混迷하
도로 考 考 考
스르라미 소리 한 번
재대로 들리 못하고
선을 바 함 수 마
十月 말까지 研究課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金

○今

○勇

○先輩들이 隊中에
를 아 다니며 考
해 주는 考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고 精神이 混迷하
도로 考 考 考
스르라미 소리 한 번
재대로 들리 못하고
선을 바 함 수 마
十月 말까지 研究課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막상 題目은 苦難
고 보니 苦難이란 苦
苦의 일들이 苦難을
감추고 아롱댄다
그러서 아 마 어는 苦
夫는 人 尙은 苦難
苦難을 苦難에 苦
고 했는 지?

○勇

○金

○今

○先輩들이 隊中에
를 아 다니며 考
해 주는 考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그러나 苦難의 一
年이라 했으니 不可
不苦難이 나와야만
될 모양이다

○勇

○金

○今

○先輩들이 隊中에
를 아 다니며 考
해 주는 考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回觀하면 昨年 봄
薰風이 吹전을 스
치고 野塵의 余蘊
이 채가서라도 양은
서늘로 軍諒을 편

○勇

○金

○今

○先輩들이 隊中에
를 아 다니며 考
해 주는 考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半값으로 買되는데
반아 들고 買되는데
반아 들고 買되는데
반아 들고 買되는데

○勇

○金

○今

○先輩들이 隊中에
를 아 다니며 考
해 주는 考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이제가는 개천가
二層으로 할려가서
五 月 各 各 各 各 各

○勇

○金

○今

○先輩들이 隊中에
를 아 다니며 考
해 주는 考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이리하여 著作된
다

○勇

○金

○今

○先輩들이 隊中에
를 아 다니며 考
해 주는 考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그러나 夢을 夢해
날 가는 夢해 하나
씩 夢해 하나 하나
씩 夢해 하나 하나

○勇

○金

○今

○先輩들이 隊中에
를 아 다니며 考
해 주는 考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그러나 夢을 夢해
날 가는 夢해 하나
씩 夢해 하나 하나
씩 夢해 하나 하나

○勇

○金

○今

○先輩들이 隊中에
를 아 다니며 考
해 주는 考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그러나 夢을 夢해
날 가는 夢해 하나
씩 夢해 하나 하나
씩 夢해 하나 하나

○勇

○金

○今

○先輩들이 隊中에
를 아 다니며 考
해 주는 考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그러나 夢을 夢해
날 가는 夢해 하나
씩 夢해 하나 하나
씩 夢해 하나 하나

○勇

○金

○今

○先輩들이 隊中에
를 아 다니며 考
해 주는 考
를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을 批 단 初步期

此江의 勢方을 二川이
 在 素望을 간직 海에서
 此 陸路은 비로호 때에
 五月의 葉念風이 마냥
 들고 있는 素望의 후
 箭이었다 이 素望의
 象徴과도 같이 우리
 素生은 高麗 運記의
 內을 추론하였다

하고 또 素望의 功을
 象徴한 感의 功의 功을
 中 運에서 效의 功을
 功을 하 시려고 할 때
 리는 初老를 覺의 功
 여 보았다는 理倉과
 나 포레몬의 軌旋 將軍
 모양 일포스산과 같은
 은 고보스른 功의 功
 이겨 보았다는 功의 功
 을 가지고 勇將 百戰
 하여 勇將의

苦難의 一年을 回顧하면서
葬 鍾 烈

苦難의 一年을 回顧하면서
 葬 鍾 烈
 苦難의 一年을 回顧하면서
 葬 鍾 烈

이 苦難의 一年을 回顧하면서
 葬 鍾 烈
 苦難의 一年을 回顧하면서
 葬 鍾 烈



三期 落伍生 K

사람은 한 목적을
高해서 感情熱을
바치는 그瞬間이
장 幸福한 瞬間이
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고간에 目的이
서야 하고 이를 推進
시킬 計劃이 있어야
하고 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람은 理想가 있다
그러나 生活가 있다
그러면 生活가 있다
그러면 生活가 있다
그러면 生活가 있다
그러면 生活가 있다
그러면 生活가 있다
그러면 生活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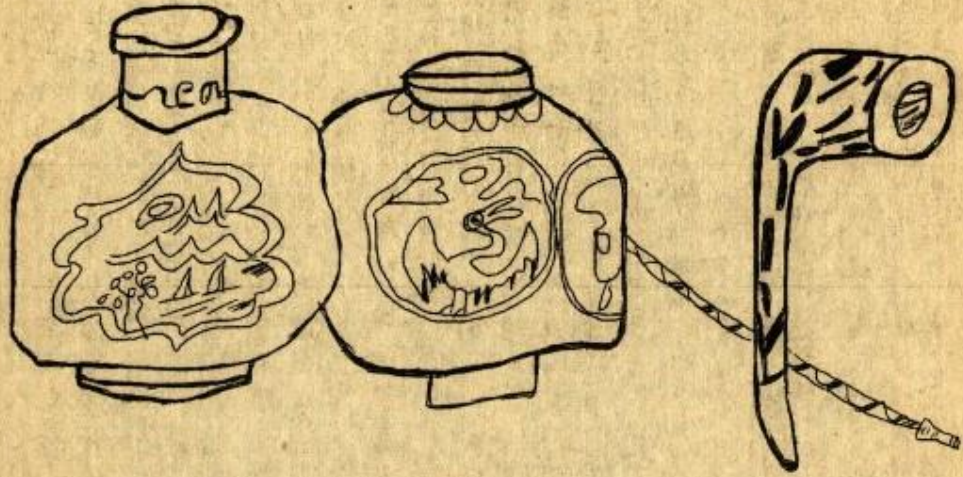
사람은 한 목적을
高해서 感情熱을
바치는 그瞬間이
장 幸福한 瞬間이
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고간에 目的이
서야 하고 이를 推進
시킬 計劃이 있어야
하고 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람은 한 목적을
高해서 感情熱을
바치는 그瞬間이
장 幸福한 瞬間이
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고간에 目的이
서야 하고 이를 推進
시킬 計劃이 있어야
하고 熱이 있어야 할
것이다.

東福夢集

會員 學生、通信 學生 其他
集 其 多數 應 募 巨 比 其
다
▲ 論文、小說、詩、一個 豫 設 是
▲ 空 想、隨 筆、紀 行 文、三 十 字 內 的
▲ 提 出 如、高 薪 運 記 技 術
▲ 提 出 如、高 薪 運 記 技 術
▲ 提 出 如、高 薪 運 記 技 術

사람은 한 목적을
高해서 感情熱을
바치는 그瞬間이
장 幸福한 瞬間이
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고간에 目的이
서야 하고 이를 推進
시킬 計劃이 있어야
하고 熱이 있어야 할
것이다.



李老人

朴寅奎

「아! 하! 아! 음」

오전 세시쯤 李老人은 가족만 남은 열촌에 五만 상으로
그리면서 네 황개로 큰 대(大)자로 벌리면서 입이 찢어
저라는 듯이 하품을 한다

노인이 처음 얻은 팔이 힘없어 나뉘오다가 옆에 누웠던
마누라의 전 부엌에 놓이자 마누라를 지긋이 깨안는다
그러나 문득 마누라의 불룩한 아랫배를 의식하고 한숨
이 판을 뜯고 돌아누운다

「제갈할 저놈의 것이 연세나 나오나」 하고 말어선 李老
人은 입신 七개월 된 태도 남달리 맹공이 배롱처럼 붉어진
마누라의 배를 노려본다. 울해 들어 예순살인 李老人은
李老人 취급을 받지만 마흔은 常癖이라 같다

마누라는 그 2년쯤 어 비혼 다섯 다섯째인 새살난 「돌이」 관노
이 막둥이로 알았으니, 돌이가 전도 깨지 안해서 다섯 입신
을 하였다 마누라는 역정을 부려대는 것이다 마누라가 역
정을 부릴 때면 李老人은 아주 짐장을 빼고 만종해 한 번
다 저 것이냐와 느러이가는 李老人의 무릎을 오르내리며 하
얀 수염을 잡아 다룰 때 그 따듯한 맛을 생각하면 아주 상쾌
하리라고 미리부터 해쿠 웃어 오면 덕이다
해해 그것이 재미야 뉘사는게 별개일세

물건이 아니라 낫은 라리가 아니었다. 잘 말은 잘
작게 버렸다.

그 후

홍노인은 다리를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한 손은
내쉬며 잠잠한 눈을 잠잠거린다. 열 하루 후 홍노
인은 구벽 구벽 골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삼복
폭서에 손을 속매 얹아 부리가 땅에 닿도록 구벽
거리며 조는 병아리에 방불하다. 홍노인의 셔를
켰든 머리가 꾸벅하고 수구러지는 순간, 광
하는 소리와 함께 홍노인은 정신을 차렸으나 이
마에는 붉은 피가 나뉘었고 억수구 폭지가 떨어
져 다라났다. 홍노인은 부산히 방으로 들어가 현
거품을 떨어 머리를 싸매고 다시 나왔다. 이전 일이
일주일에도 별차려나 있었다. 이마의 상처가
썩었다. 그러나 홍노인은 다시 장막을 때려 냈다.
홍노인은 도끼를 높이 들어 내려칠 때마다 이마가
울러 상처가 쓰러졌다. 골이 울려 쏘아치는 것 같은
두통이 났다.

그 아이를 물치야

그러나 홍노인의 열흘은 스캔트의 별은 조그맣고
없었다. 평그린 열흘은 그 열의 구와 함께 말하
이 아니었다. 기진한 눈이 피로하고 두통으로 안
하여 나란한 것이다. 그래도 홍노인은 광각 패기에
별이 없었다. 다음 편을 쓰기 위하여 그는 고통을 누리는

쓰고 해야만 했다

다음이 열해 병을 불렀다. 해리가 휘황하듯
큰 형이 시루를 때어다 보루에 놓고 말해 놓는
런가 아니라 눈 송편을 고집어 낸다. 온몸은 땅에
에 함박 걸었다.

몸은 관적, 관적 하고 노곤 노곤 하였다. 홍노인
은 방으로 들어와서 그제야 마누라와 열며 섰는
말변을 깨운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주는 나
편이 고풍 새벽부터 일어나 그드름 일하는 것
브르르든다. 라리를 고쳐 놓는다. 구참다 드르
꿈광서린다.

말을 리를 일어나 병선줄을 말아 다섯서만이
야 다섯서만

말은 부디의 일어나 눈을 부비지만 마누라는
여전히 꿈을 거릴 뿐이다.

그 아이를 물치야

하고 홍노인이 큰 소리를 썩 지르자 마누라는
그들그런 자체를 두꺼비처럼 놓지기여

그 아이를 물치야 연제나 양은 같아 이 큰
해

그러나 그것은 현금의 생활을 음오함이 아
니요. 그러나 편에게 비안해서 하는 말이요 그
여자의 이빨이 안 것이다.

그 후 그런 소리를 말며 먹고 살려면 별수 어찌는

거여

하고 후노인은 별다른 말을 안한다

「왜 하필이런일이야냐고 그간도 못자게」

「왜 이날짜라 잔소리까지 심해어련놈은 이런 말을 하잖아 하나」

「아 하나 제 살기 위해 하는일이야 뭐야」 잔소리가 심해」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안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다가가 물어보았다」

「날이 밝아간다 다투어 안방이 놓으려 한편에 서는 령을 친다」

「너들이 부인들을 어떤 재워져 제 나다 말없이 령을 말한다」

「한가마나 쌀이 벌써 배는 뒤배싸력이나 찰떡이나 꿀떡이나 절편이니 하는 것으로」

「심한 짜리 정가포를 달고 쌀아 전한다」

「이윽고 권취 아우어리가 되었다」

「도보관은 천주각 리의 사관들이 다있다」

「그런수밖에」

「그들(혁간수)은 다 빈민이라 빈민일수밖에 없다」

「이부회난민이 아니면」

「고향에서 살려고 버르러가거다」

「다 살수없어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로써」

「그러나 철거당한」

「바락」

「빈민으로 구성되다」

「사피한」

「고운동(高恩洞)이라」

「변가히 감각되리라」

「철근」

「거민들은 또한」

「나의 비박을」


「전고 살지않으」

「

」

」

接室



(問) 語法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양인데 우리나라만 몇가지나 있으 며 어느것이 가장 能率的인지도 (音# K#)

(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건만 해도 高麗式·遼波式·서울式·中央式 世宗式·軍邦式·韓南式·檀國式 等이 있는데 實用性 있는 것은 이들中에서 大韓運說學術協會에서 公議한 高麗式·遼波式·서울式·中央式 四種에 不違합니다 그러나 이 四種中의 어느것을 授해야 됩니까 (音#)

「안 되었다」

「그들은 시골 마을 같은 흥흥은 동에서」

「그런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한 현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하는 것이다」

「그들이 재다」

「제고강의」

「동쪽만」

「양센」

「트로쉬」

「수감을」

「떨때」

「변장」

「리외」

「각」

「다」

「그들이」

「한사람」

「이라도」

「떨어」

「진다」

「면」

「그만큼」

「후노」

「인에게는」

「손해」

「하기」

「때」

「분」

「이다」

「후노인은」

「말」

「하기」

「도」

「심」

「했다」

「눈」

「이」

「까」

「칠」

「까」

「칠」

「하고」

「졸」

「리」

「시」

「만」

「할」

「뿐」

「이다」

「관」

「함」

「이」

「말」

「서」

「대」

「서」

「는」

「아」

「지」

「는」

「듯」

「하」

「며」

「몸」

「이」

「앞」

「으로」

「꺼」

「꾸」

「러」

「거」

「려」

「고」

「한」p>

「다」

「간」

「선」

「히」

「몸」

「을」

「가」

「누」

「고」

「정」

「선」

「을」

「화」

「렸」

「는」

「때」

「에는」

「환」

「기」

「를」

이 반짝 반짝하는 눈썹이 개피피기음상 반짝이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리고 고난의 열정을 휘둘러 주며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달린 것

그서신이 한개에 일환의 아성이 열려서
천개로 월선 남으셨다! 벗어날 만 전하면
수(팔)이 한년 구우는 마추겠구나 그년의

돌선교 학교에서 돌아온다면 귀족 차후하고
아...

홍노인의 피골이 상접한 열정은 애는 미소가
다 이 후고 홍노인은 늘어진 복신은 이즈기며
가자! 증강연마 일백오십개여

하고 비적거리며 보지 못하게 골리여 놓으라
은 훈강엄마라는 경상도 수다에게 내 운다
가이거 백오십개이소

그러이소...
홍노인은 경상도 기우리로 대답하며 아무
쾌하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그 웃음 열큰은 우는

것 같았다 눈은 끈질기게 찡해지고 우는 사람은 유학의
영성대교 우어개는 더욱 늘어난다 훈강엄마
는 그러한 홍노인을 보고

가아이가 버려져서 눈물이가 얼거나 못라겠으면
저래 장난속에 파는 처이소 저래해야 살아야 같은
겨... 쫓...

하고 혀를 치며 나가 버린다 홍노인은 다시

도구들은...
이것이...
여기...
이것이...

홍노인은...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李老人は 此間に 感心だ 何事にも 感心だ

그 사람은 하잘것없는 것

이렇게 중얼거리릴 때, 전라도 사투리가 의의였다

그 후 약 세어 달랑게 말할 하라오

후 노인은 그제야 고향에서나 개인 뜻 풀게 같은 영성한
손으로 떡을 세여 앉는다

그 아부레도 저승은 업었지? 어데가 있어 업고 말고

천만의 날, 저승이 어데 있어 죽으면 그만이야 말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부라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으면, 영강이 연기가 아니면, 모르면 흐리므로 되

고 말지, 구락이 어데 있고 지우어 어데 있어 살

데 업은 수의 죽으면, 그만이야 아부레도 남지 않는

다. 한 주부의 흐린 방울의 물...!

그러나 얼마 후, 후 노인은 그가 조공전에 죽어 업에

대하여 생각한 것은 가깝게 업었다. 다만 떡은

세기에 바쁘다. 조공전 비감에 감겨 넣을 일

고 업었다는 것을 가깝게 업었다. 그리고 별 곁에는

조공도 삶은 벌이 업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

이 업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선감은 개였고, 괴로운

을 참아야 했다. 열년의 구두가, 후 노인을 울

게 하였다. 재흥부리며, 할고 간다 오는 아들 노의

가 거저 하는 것이 신중하게 예배를 지경

이라 마음을 달리는 것이다

배안 남은 어딘판이, 후 노인을 아팠다. 한가마

나 살로 만은 어우 수를 세어 냈다. 눈은 가칠까

칠 해고 배는 늘 늘고, 욕심은 해이 해이 해이

참고 전의 어야만 했다. 건이다. 바지 방으로 열두

시운해서, 늘 늘고 수리가, 배 오십계를 가져 갔

은 때, 후 노인은 하루리 화 같이, 점심점 아침을

벌었다. 평감과 본드 첫 반을, 후 노인은 해던 지

저나 밤낮은 업었다. 밤이 해공 고양이 밤만

죽고, 그라리에 소리 없이 살던 건다. 노외

피로라 공부는, 후 노인의 욕심은 노곤히 풀

어늘어 지게 하였다.

이와, 후 노인은, 화가, 러외 연기를 보며, 각

의 늑은, 늑을, 스며 하였다. 그러워 것은, 아강

업었다는 뜻이, 태평하게, 큰을, 큰다

通信案納

이 要해도 꼭 先修 에라라 時日의 短短은 업으니

〔向〕 此生은 通信 (大耶) 本 本校 通學生은

學生인대 六個月向에 〔受給〕 正規로는 一年修

何等 막기 않고 卅月 程度로 法式 業이니가 앞을

無難히 全法式을 體의 習得은 可하나 程度 向上을 爲

修了 하렸으나 速 先全한 程度와 及 하야 남의 業을

度가 不 振합니다 文은 大시 卅六個月 쓰거나 하고 디은

앞으로 어편 方式 向의 練習 課程을 에는 及 文하는 禱

으로 完했으면 修 習해야 하는 것으로 習을 卅六個月

習습니까 저는 時日 卅六個月의 努力 程度 해야 된습니까

사람이란 허탈 것 많은 것 한곳가 풀나 무 그보다 더
 하갈선언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
 였지만

후노인은 삶은 관에 잠겼다 한시간 반만가 된다 시
 일이나 직접적인 일만은 다 시며 갈갈한 눈을 부
 며 눈어선 흑선은 움지겨 도라오는 도보관 역장
 수들로부러 피가슴을 받고 수환질을 하고 내일
 역만은 삶을 팔아드리고 하여 열두시까지 날 뒤
 러면 단장도 들지 않을것 같지만 그러나 후노인
 은 단장에 갈았다 후노인은 숨만쉬지 않는 하
 면 갈레없는 종장이다 그러나 후노인의 발끝에
 는 즐거움 빛이 떠올랐다 후노인은 웃음을 구는
 것이었다 팔년이 꿈다란 구우를 신고 뒤꿈치
 리며 풍아하는 모습에 눈이 어렸다 그리고 안
 해의 땀소리에 은 아기가 나와서 부름을 오르
 리며 흰수염을 저프리는 것을 보면서 보았가
 그야야야! 이노아 아푸고나아퍼! 하하!
 이노는 아버 수염을 잡아다려 하하! 그노 참
 후노인의 입가엔 연설을 잘거운 미소가 내렸다 이
 후고 후노인은 별력 일이나 눈을 부비고 광작을
 편다 아무런 스펀은 벗드 없이 느리는 흑선은 작무네
 흥성하는 것이다
 지금 그의 생활이 어떻게든 사후에 여겨 되면 그
 천것은 상관할바 아니라는 듯 닥치는 그때 그때에
 즐거우면 고반이라 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건은

행복으로 느끼는 것이 인생인 모양이라
 이바의 연은 빛고 한순위를 길게 뒤며 흥재원장
 을보니 나적도 화장터의 연기는 오르고 있다
 (일후 1980. 10. 10)

(詩) **삼의悲哀** 柳 郷

人生은 季節이다
 그러나 凍結된 나의 마음은 季節이 없고
 그 華麗한 衣裳도 變化를 가질수 없다
 어쩔지 燦爛한 混沌속에서 夢想한것
 恒常한 개처럼 變오안것 보라 빛이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가고 晝夜가 검은 것
 그러나 그대만은 검은 것을 견우고
 아-니 온갖 것을 견줄수있는 妙力의 힘을 가졌는가
 열룩지는 鬚과 眉과 瞳과 齒과
 齒과 舌과 喉과 舌과 唇과 舌과
 못하게된 이 地에 흐르는 流星처럼
 살 못 여기 떨어겨온 너와 내 肉體



고향을 회상하며

이윤화

한아름 두아름 보이지 않로는 그 두아름을
이르도면은 그 두아름을 내내 초견 비는 첫 감고 산은 언다
부인 우선 나는 추억에 괴루해 올은 지난해를 회상해
보았다

그리곤 바운의 등대를 활교라 애를 써도 보았다
흔더영 어린 과거를 타는 가슴을 울적 해진 외로운
으로 향기 찬수를 위하여 내도 보았다

난 그저 몸부림칠려 질때마다 가랑비 내리면
옛서결의 고향이 가며 오른다

저난 어린 시절 장미꽃 뜰 앞에 불개 불개
피고 지든 고향 집은 은초가어 내도 보았다
가끔은 고향과 시들은 운병에

그저 회상과 그리움에 반 감갈 뿐

어느덧 녹원이 푸르른 며칠을 맞이하여
점 푸른 안개 속엔 가득한 희망을 그려 보고
산 언덕

추억에 그리운 어슬픈 하늘은
아늑한 내 고향에 한 포기 그리움을

연불수 앓는듯 — 앓는듯 —

홀려간 라져 지난 해는

맛볼수로 앓다는 뜻이 자꾸만 홀려가는 세월속에

그리운도 추억도 아득한 것만 같다

가표은 고향엔 가지 않고 서러운 하루밤이 지날적외각

타관향 해 배웠든 지난 해가 새로히 꿈무너른 이슬땀 —

동지선알 찬바람속에

정처없이 시름겨버이 버 — 남쪽 하늘은 바라보련이 —

아! 그리워라 그리워라 내살든 정든 땅 부모 형제가

불러보고 울어봐도

플앞에 무궁히 라란다는

장미의 한송이 바려

눈물이 어련듯 하여라

아! 그리웁다 그 북은 연성 나는가고심다 그리운 내 고향에

알뜰이도 야속한 이세상에

왜 나만 홀로 외로워야 할까

휴식소에 잠져야만 할까

아! 구름이라도 이한밤 내 고향에

기어히 가

희상에 사보친 그 옛시절라 그리움은

반가히 즐기기리 반가히 밤드리

速記란 어떠한 학問

이기에 오늘날 나를

誘惑하여 修練에 소

기를 倏注케 하며 將

次 나를 어떻게 引導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入門 初日

을 回想하며 오늘날까

지 걸어온 時面을 通古서

받은 一端의 時感을 披

표하고저 한다

回顧하면 去年 十二月十

五日 速記學을 研究하기

始作 하고서 부리는 내가

가져는 約大割을 運託

修練에 提供하여 斯

界에서의 先輩들의 獨

特하고 能熟한 二術法

을 나의 것으로 體得하려

는 것이 唯一한 未夫의 希

望이었다

本校 入門當時의 希望로

있었지만은 現今에 이르

거서의 期待도 크지 아니

할수 없다

學由 修練에 肩味하여

나날이 刷新的인 學習

을 가지는 時期에 이르니

神仙遊藝에 도커자루서

는 줄모든다는 格으로 同

法式의 妙技에 陶醉되

어 奇茂好哉라 護音

을 表하는 歌개만 거리길

별이었다

여기에 내가 본

어온 點은 時

向이나마 段階을 区分

하여 실어보면 第一段

階로서 初二日月向은 學

徒 全員の 熱이 高度로

發熱하여 相與의 氣力

큐림은 可護할 만하

였으나 第三段階인 三

四日月向에 이르니 同門

修練하던 學友들은

漸次 方向을 달리하여

文字조차 變感을 주는

落伍의 不運에 處하는

者가 적지 아니 많았다

冥然이 時期는 不詳한

時期라기 보다는 오히려

高度化한 技術을 習得

하는 時期이기 때문에

難難일지도 모른다

다 그 후 三段階로서

五日月이 되는 時

期는 크나말로 速記記法

의 効能을 增進시키나

아는 가장 興味를 느끼

는 時期이며 速記의 魔

光이 비쳐나오기 始作하

는 速記能刀 體得의 初

步의 段階인 것이다

그리고 四段階인 七日

同階에 突入하면 어느

程度의 自身을 띠어 獨

立해 보려는 것이 文通的

인 學徒들의 自覺의 地

나도 現在이 彼에 處하

고 있으나 彼로는 力量

에 넘치는 程度에도 사

양치 않고 덩어지는 勇

氣를 갖는다

以上은 實技面에 있어

서의 進展事項을 看或

할수 없었기에 다들 一

精神面을 通

해서 所感을

述코자 한다

는 것으로 보아 누구나 速記

의 段階에서 其地位가 不

는 것은 甚明하고 그

『段階에서 其地位가 不

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精

神의 持久力과 勤耐性이

는 人士를 相對로 함을

要點으로 하고 堅固한

精神的 訓練을 시켜주며

速記入門所感

五期生 宋炳午

炳午

精神面을 通해서 所感을 述코자 한다

이렇게 할 줄을 모르므로 徒食하는 無業의 者라 부러 刺戟을 받

은 힘이었다는 弊害

된 精神을 收拾하여

새로운 志立을 함에

는 一人一技의 社會

的 標準이 될 지어

다

내가 거렸음 速記過程과 나 같은 건

金 祐 赫

速記라는 말만 들어도
선뜻한 快速感을 느끼
게 된다

그러하여 速記士라는
假想的인 位階에 自身
을 結伴시켜 볼 때 速記
는 記錄의 王者라는
感은 가지게 되어 배우
기도 前에 速記를 해 보
려는 心境이 야마 速記
士를 研究해 보겠다는
學徒들의 共通的인 心
理일 것이다 特히나 우
리가 日常生活에 使用하
고 있는 言語라는 것은
形態에 있어 一種의 程度
의 振動으로서 時間의
制限과 場所의 制限
그리고 永存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으며 또는 地域的으로
相隔이 있을 때에는 全
혀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言語의 斷
端을 막고 言語를
永存的으로 時間的 制限
과 地域的 制限을 撤
去할 것이 만일 이 物은 物
이든 文字인 데 이 文字
가 생김으로 부러서는
何時何處何人이 한 말
이라도 때와 場所에 拘
束되지 않고 말한 사람
의 形體를 그대로 看
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文字만 가지면 瞬
間的 機會조차 없이 살
아지는 말을 永続的
으로 文字化시킬 수 있

을 것인가 이는 좀더 詳
해서 여러 번 일일한 데
기에서 速記記法이 能
求되며 速記技能만이
오직 言語를 살리고 言
語의 生命을 永續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나 議會政治를 하
는 近代國家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速記라는 것은
學徒들의 重要한 地
位에 位置하고 있음이
로 해서 나의 學徒들
에도 여기에 焦點이 在
는 것이다

이 機會만을 期待하는 次
本校에서의 募集이 實施
되자 나는 倏然히 入學
을 하여 尙今 潛在의 才
은 나의 抱負와 希望의
內에는 開放하기 難
것이다

學徒들의 形體가 生
後부터는 하르빨리 入
學受講을 하겠다는 것이
當時의 心境이 었기 때
문에 學徒地 位를 不向
하고 어느 學徒든지 入學
하러 來는 學徒들을 見
訪하였으나 때마침 入
學 形體를 見해서 다

하루 하루 學徒들 文字를
習得하여 가고 또 學徒
들은 習得하여 諸法則을
하나하나 익혀 나간 때 그
巧妙한 筆을 더는 文字를
보고 感嘆과 리 羨望을 수가
없었는바 倏히나 더러한
形體를 見해서 文字의
文字의 尙階를 見
서 그 尙階이 文字의 後
進을 하게 된 것이 物은
전지라든지 또는 尙
에 다스리는 文字를
著하는 文字를 見
文字의 來去를 해
것들을 볼 때 同
創作하신 金天漢先生

한 機會만을 期待하는 次
本校에서의 募集이 實施
되자 나는 倏然히 入學
을 하여 尙今 潛在의 才
은 나의 抱負와 希望의
內에는 開放하기 難
것이다

金天漢先生

의 큰 차가 선 범위에
感服하리움을 수 없지
아직으로 舊體도 新體
入學 初日 大體 運 交
協會의 重鎮이신 右
部長들의 初日人事에
서 여러분들의 이 學
校에 들어온 것을 알리
못하노라 이제 하남의
體를 變트는 것이다 라는
文化部長의 言 實은 尙
스나 의 努力을 갖게 하
였으며 漸進的인 發展
을 이루게 한 有動力
이었다는 나는 오늘날
充分히 表 露를 내세울
수 있으며 反面에 普及
不能의 弊日 運 記하는
것도 識리야 할 것임
을 논하 말았으니 此
本校에서의 修 練 해 온
것이 痛된 일이 아니며
言語의 生命을 無限
延長시킬 수 있는 極

대한 記法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本法의 이보다 優位에
立據하고 있다 는 것을
自認하면서 勸 講 初日
의 依然한 感 懷는 오늘
도 變하지 않았다
이 喜悅의 非 常 나에게
만 局限한 것이 아니라
本法의 이의 習 得 하
고 또는 修 練 中 에 있는
本 派 學 徒 들 의 他 派 共
通 的인 心 境 일진대 本
派 法 으로서 어찌 所 期 의
目標線을 突破하지 못
하며 中 途에서 결 束
을 범추는 本法의
運命이 아니라 는 것은
現下 國 情 을 考 始 하
는 設 會 의 通 信 社 會
에서 主 役 的인 存 在 으
서 活 動 하고 있는 本
派 先 輩 들 의 有 缺 은
도 充分히 推 定 할 수

있는 事實이다 亦 巧 修
練 中 에 있는 우리로서는
右 分 野 에서 活 躍 하고
있는 先 輩 들 의 一 層
더한 活 躍 으로서 斯
界의 聲 望 이 되어 갈
라는 것이 先 輩 會 社
會 體 으이며 또한 後 輩
으로서의 聲 望 가 必 ず
있었다
우리는 이와 같이 優 位의
如한 本 派 法 을 修 練 하
는 學 徒 이 며 또한 보
도 修 練 한 先 輩 會 社 가
진 우 리 으로서 斯 界 에서
未 來 를 擔 當 여 할 能 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 리 으의 本 派 이 있는
호 큰 課 題 가 아닐 수
없다 即 우 리 의 路 線
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
라 서 運 記 가 價 值 가 如
느냐 設 法 하는 審 判
을 받게 되며 나아가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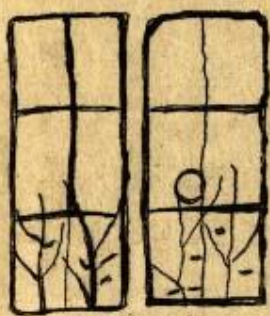
斯界의 聲 望 은 左 右 하는
重 大 的 事 實 가 아닐 수 없다
니 우리가 나같은 聲 望
然히 是 解 야 할 것임은 再
言을 不 得 한다
現下 洋 의 情 勢 을 考 始 하
는 設 會 社 會 體 는 極 少 數
除 外 하고는 本 派 會 社 會 體
가 尙 未 國 民 의 代 表 者 로
構 成 된 設 會 社 會 體 를 考
있으니 時 代 는 必 ず 如
是 記 法 을 必 ず 考 始 하
라 나 라 의 例 를 보든 라 드
設 會 社 會 體 上 에서의 合 衆 的 의 實
은 即 國 民 十 萬 人 의 表 現 이
나 어찌 이 體 上 에서 必 ず
實 是 를 記 錄 化 하지 않
全 國 民 界 에 알리 리 必 ず
있으리? 然 然 으나 라
時 半 分 도 停 滯 點 이 으
는 時 向 과 合 衆 的 的 的
在 史 是 를 必 ず 考 始 하
우 고 만 다 면 時 次 過 去 가
될 現 在 가 必 ず 考 始 運 記

이 때 후식이 우리 후대
를 흥한 正史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 도는 分野에서 외향
정신, 永有의인 亂亂
으로 반등에서 文化向
展에 勇猛함이 곧 보
說의 功能이여 이것이

근 遠호士로서의 忠義의
在 勢力가 아닌가 생가?
한가
(筆意 力 王 朝 修 束 本)

일이다 浮動하는 正史가
後를 타고 起伏하는 正史가
頭에서 깨어나려하는 正史가
은 歴々應는 指針이므로 單
舟와도 같고 그러나 오로지
過去를 漸念할 수 없는
어리석은 고집은 모든 것이
리나가 버린 것과 같이 常用
없고 모든 非正精神이다



隨筆

日曜日의 斷想

崔寅鎬

오늘은 日曜日이다
窓밖에는 가는 바가 구
슬이 도는 적거리고 있
다
나는 지금 腹腹에 잠겨
北窓 正은 구름을 무
심코 쳐다 본다
이젠 개발 된 공간에서
깨어나려고 언뜻 自身에
돌아가기도 한가 오고 가
며 버려진 스리는 구실을
이 한낱 浮浪처럼 遠

遠한 絶手線을 잊은
靑堂의 彷徨같은 느낌
으로서 空의 靑靑은
脈搏에 힘은 잊은
탓일는지!
이제야 알로 허공인
내보내의 빛바함에
서 눈앞에 설레이는
아리랑이름 헤치고
뚜렷한 靑靑의 靑
手線 그것을 바라다
볼 줄 알고 靑靑을 잊
지만 해야 하겠나
그러나 사람은 세심
을 타고 자신의 의로

와 나의 권태로써 모든
도 눈음의 時向은 바
편하고 애석하고 안타
자운 마흐난이 微塵
의 아득한 지평선으로
흐른 인생은 물아 네물을
따른이다
시계의 양침은 우리에게
앞길은 재촉하고 가자스
르운 時向인 時向을 고
하고 갔지 남노가 이와 같
이 배의 靑靑은 흐름은 연천
하가 버리지 않다가 그들부
를 고 말버는 靑靑은 產
흔의 세계는 재장 된

이 감고 대하는 별하리 그거
도 瓊樓이니 空은 눈보라
自身의 無地에 榮光같은 한
줄기 靑靑이 나마 저 바릴 수
없이 오를도 무심코 하는 선
영을 받본 것 같다 그렇기에 時向
더 좀더 아픈 남고 靑靑에
아보려는 용망 단은 부질없
이 靑靑한 靑靑이상은 어떤 것이
비가 내리며 靑靑이 靑靑한
은 靑靑으로 가고 있는 靑靑은
발견한가 (八二期 崔寅鎬)



女速記士の 꿈

洪乙姫

내가 사랑하는 벗인
아

너도 알다시피 글쓰
기라면 하다 못해美
文의 雜沓조차도 할
줄모르고 싶다면 내가
새삼스런히 女速記
士の夢이라고 夢
노에 靨을잡았다는
데 欸해서 아마 너는
一權의 嘲笑로서 이
글을 査할줄안다 그
렇지만 내가 半년이 넘
은 이때까지 너에게
한번도 말한일이 없
었던것을 말하고싶
어 攄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昨年
十一月十五日 境이
였다. 보다 아마 그것
보다 멋있어 더 지나
갔을거야 내가 速記
士 境에 다닌다는것
이 너에게 발장이 되
었을테발이다

그러나 나는 상으로 未
숙하고 罪스러운것
보다도 두안하여서
다 攄을을 攄했지
어. 내 너나 福이
에게 달아너는것이 없
었지만 그렇지만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
事 夫는 故 攄로 한거

이런 한지라 攄게 든
지 攄는 攄는 攄는
것도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勿論 終局의 目的은 그
것이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自身の 積極性을 非
難하며 應用함을 攄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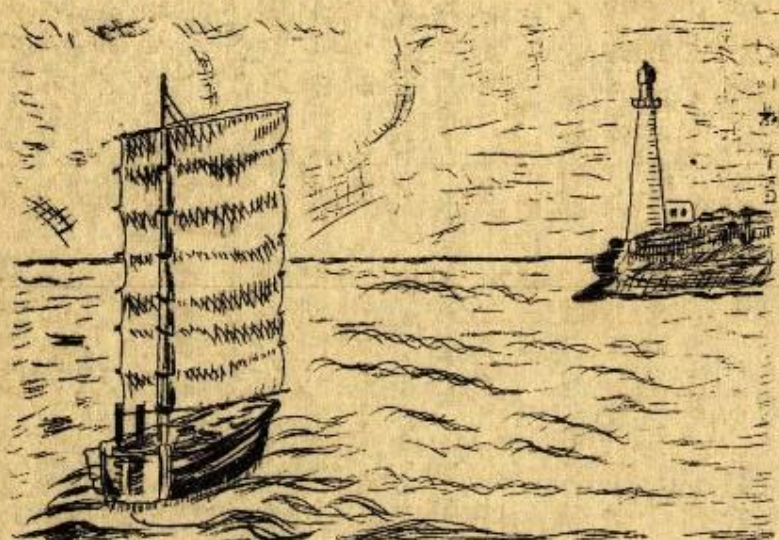
엇을 바라는 다음에
서 좀더 誠實하게
살을 惜爲하자면 하나
의 Expat가 되므로
서 人間으로서의 勇氣
할수 있는 絶望境까지
은 卑劣한 생각에서
處에서부터 出脫코저
沈沈하였단다

이렇게 미련과 두려움
을 간직한채 惡동성
한 밤 九時境에 歸夢
할때면 永樂敎會의
Celine 소리와 나쁜애자
한 關係와 醜態을 잊
을만큼 내음을 다사름
게 해주고 格別되어 있
는 내 心魂의 힘이 되
었고 本末의 處圖에서
離脫되어서는 내 沈沈을
부둥켜 주었다단다 그리
하여 어둠을 물려주는
그 鑪領라 더부러
눈보라속에서도 지름
리듬 照拂을 하였다단
다 나는 勇斷을 내어서
하면 될것이다 라는 自
覺心으로서 沈沈히
誠心 懺悔를 해왔단
다 처음에는 쉬운것
같으니 그것도 나날
이 沈沈히 되니 안
이 없었겠나 날이다

저승에서 오는 羞耻
心과 罪愆不足에서 오
는 敗北感 肉身의 劣
劣함이 나를 소초하
게 만든 것은 있었으
나 苦痛히 한번도 倦
음들을 느껴본일은 없
었어
대로는 이전일로 왔던
단다

이전 별서 내가 오래
내가 그들과 사귀기
일이 있었어
것결에
「女자가 劣點을 배우
다는 그 境界를 알수
없다는 여기가 들리지
않겠나 아마 沈沈한
男子女자의 것만과 그
전 그리고 勇斷한 沈沈
向題가 나 왔는데 나날
리는 걱정할바 필요가
없는 것이야 美力の 優劣
의 불가 變遷하지 않
는 限 女자를 劣劣의
로 採用한다나 이것이
뒤 女자의 社會的進
出을 爲해서가 아니고
結局 女자가 勇斷보다
Maragable 하라 이
거야 이것이 沈沈 神의
擧理라고 首肯할수
없는 劣劣한 沈沈이
키 沈沈한 同情에 한
말은 人間의 기라도 沈沈
沈沈한 것이나 날이다
너나 福이도 반드시 沈
沈한 것으로 받는다

능이 女界를 아득히
면 彼界의 界界의 句
體이라고 沈沈하고 싶
은데 그렇다면 내가 女
子이기 때문에 沈沈한
가 될려는 것이 정면코
잠만 있는 날수 없지
만 아까말한 沈沈한 것
들은 나로 하여금 彼
界의 界界에 리 沈沈을
爲한 沈沈한 沈沈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
히려 感謝함을 느낀
단다
沈沈한 거 너의 어머니
「凡事에 沈沈해와 한
다는 말은 새사
스런히 眞理라고 再
認코 주니
내 沈沈한 沈沈한 沈沈
에 이런 말은 하겠
으면 沈沈한 沈沈한
하버튼 나는 沈沈한 沈
沈한 沈沈한 沈沈한



그런데 너대우너의
 일들을 듣고 비록
 피할려고 하리저를
 지라도 나는 나의 실
 을 가련다. 바이론은
 이 말하지 않았나
 기쁘나 많이 해주렴
 내 뜻한바 다 써서
 썼는리 노르만 지
 루한 감에서 프란츠
 폰 봉겔어 (第五
 期 修 護 生)

速記士ル
 柳智永

在史의 過程이란 宇宙의 二向의 向
 함을 爲爲한 남어 係를 詳考하여 人
 類의 發展 課程은 研究하여 宇宙万物
 의 理致를 發見하
 고 새로운 体系를
 세우고 새로운 理論
 을 展開하여 學者
 가 되는 길은 아나나
 어디까지나 文化의
 潮流의 尖端을 追
 步하고 있는 것만은
 事實일 것입니다
 勿論 東洋에 있어
 서는 古來 一般
 學向이란 目的의 知
 識을 얻고 人格을
 修練 克成한 데 있
 을 것입니다
 西洋에서는 知識을
 배워 이를 生活의
 道具로 하는 傾向이
 顯著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所謂 學向
 이란 天地万物에 對
 한 知識과 그 實際
 를 알아 人向性의
 深度와 形而上的位
 置를 說知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深淵의 一隅
 같은 深淵의 一隅
 를 窺어하고 咫尺間
 使用 價值는 度 期하
 여 그 課程 課程은
 多少라한가 必은히
 라고 할까 如何든
 曲折된 過程에 達者
 도 되며 舊은 隘路는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現存 議會
 政治下에서는 技術
 의 技術學向이요
 누구나 好하는 가친
 것이나 發展은 비의
 려로 되고 그 努力

速記란 비록 知識
 이 生活의 爲기서는
 無限한 喜悅
 에 감칠 뿐입니다
 速記란 비록 知識
 이 生活의 爲기서는

진구슬이 알알이

떨어져 있을 때엔

그한말 한말의 德德

는 있으나 구슬로서

의 使命을 다치지

뜻하는 것과 같이 斷

片的인 概念이나 知

識이나 혹은 그 習

得의 眞實이다 한지

못하면 眞實으로서의

實用 德德가 何事

가 없는 것이며 다만 習

得의 完成 勞力의

能日과 忍耐 忍勞

體本를 通하여 體

系化된 然市에 비

프시 速記로서의 本

體를 나타낼 것임니

다

또한 다른 角度로

考察하면 本是

速記란 創造한 文

化를 生活向上에 使

用할 수 있는 技術

일 것임니다

그러나 우리의 生活

를 爲하여 使用되

는 速記 技術은 純

粹한 意味의 學

向이라고는 할 수 없

을 것임니다

그래서 이러한 技

術的 習得은 教

育이란 段階을 밟

아 나타내게 되는 것

임니다

그런데 이 教育이란

段階는 勿論 他學

向에도 重要하지

않고 特別히 速記에

있어서 가장 重要

한 것임니다

「教育이란 學內을

가르치는 教와 사랑

의 性情을 養育

하는 育으로서 이 두

가 있음나 그 知識을

가르치는 面과 人格을

隣接하는 面과 面

이 있는 것이요

英語의 隣接하는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이런 面은 面과 面

반편 이와 같은 雜

음을 섞어와 한 和의

意味를 爲해서 賢

은 善한 心算을 行

하는 것들의 心算을

가히 認볼 수 있

스스로 認할 수 있는 心

도 認어나서 自己

이 또한 認할 수 있

는 大한 實地의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花園

에 忍耐의 心算을

行하라 그 心算은 心

算의 心算을 行

하는 것들의 心算

을 認할 수 있는 心

도 認어나서 自己

이 또한 認할 수 있

는 大한 實地의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地의 實地에 實

(第五期 修練生)

x x x

예. 베. 레. 스트. 征服後 第五期 崔孝交

예베레스트 征服이
 리고 씌우고 보니 자
 護받고 너부과장한
 것 같다 하지 만 나의
 꿈은 헛이라고 할까
 지난 것은 10월 도 안
 밤이 온 자취를 어둠의
 불은 르서 모음은 2초
 함과 이슬의 末부의
 수발은 예베레스트
 를 征服한게 추위
 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 그러면 나로서
 응당한 (실은 본기도
 듯했지 만) 세계 최
 고봉의 예베레스트를
 두엇과 비교 했나
 어릴때 쿠민항아르르
 부러바추은 거처 高
 峰學校를 마치고 오

늘에 이르기까지 勞
 카이리는 두할사와 패
 배판하는나 큰부사지
 는나의 갖은 1년은
 달이 정미문 우리들
 이지 만 나는 征服
 현후론 1호하나의 예
 베레스트도 인공치
 함을스니었다
 그것은 해 이세수의
 사신신이 보우원경
 같이 征服하는 성공은
 없지 만도 이것이야말로
 그어느것에 뒤리지 않는
 조건한 의식 후다지만
 하자면 강한 인내심
 이 征服할수 완전습
 득에의 征服이 되니
 가깝이리 하겠다
 그러면 내가 예베레
 스트에 오르기 시작
 해서 저의 征服에
 다? 할 오를에
 드기까지 과연 어느
 도의 스루이 있었
 며 부엌을 느꼈
 가 다음에 몇년
 기슬고져 한다
 첫 征服 우리 나리
 습의 정답의 성에서
 오는 나리 나리 나리
 후 大 主 義 的 인 實
 이 오를날까지 征服
 현에서 2영하의 이
 征服후에도 마치고
 는것은 사실이 며 우리
 르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당면히 피로
 위해야 할을 알아야
 되며 또 나 자신 성
 심한 잠을 아나
 질수 없었다
 征服으로 남이 큰 태
 서나서 이준 전디리

못하면 남아의 열을
 이서 실상은 다고 한 수
 었지만 지난날의 가지
 가리 유스스? 을 분
 리하고 피가 끊는 두
 세 征服을 서 종의
 을 필과 征服을 한
 다는 것은 정. 말 고 등
 이었다
 다음 征服에도 1호
 된 征服은 시람중에
 서 征服다는 것이 2호
 바꾸어 말하면 예베
 레스트를 征服했다
 는 것이 1호 征服에
 기분이 되었다
 다른 1호 征服도 말
 하면 征服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
 이다 2호 征服의 시
 대 모든 면에 걸친 상
 식이며 의식이 상. 강.
 히 부끄러운 征服은
 르서 征服을 征服
 다음에는 征服이 상의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
 비유를 들면 말하면
 나뭇가 고개를 넘어
 하고나 할가
 다 征服하는 征服
 인내심이 없아 하면
 위대한가 들 征服
 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내심이 승부
 의 열쇠임을 생각
 할때 征服을 征服
 이면 살인도면 征服
 은 征服이 征服의
 참뜻은 征服이 征服
 았다
 다음 征服은 征服
 征服에 가서는 征
 征服은 征服 하르
 征服은 征服 하르
 히 征服 보우 하르
 한 征服은 征服에
 征服하는 바가 았도

혹 함은 우리들의 양어깨에 배어지시 임무라고 생각 되며 따라서 우리 자신은 소극적이며 안 전배 노력하며 안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을 써 에 배

레스트 在服 후의 소감을 두서 없이 면 바디적어 보았다 그러면 나는 과거 처 七개 월 동안 안 취이긴 보람이 무었 이었나 나는 日記를 荷구어는 것보다도

아름은 당 혀울 수 많은 에 배 레스트를 정복하는 데 필요한 른 른한 日記(은) 얻은 것이다 내일의 또 다른 에 배 레스트 정복의 희망이 이 디립 관

은은 이루 매 결오 큰 씨 하나 의 산 고 읍이 된 것이라 (부야 玉期生)

동하는 생을 온갖 환경에 온갖을 니를 대 方向 잃는 視像의 彷彿 같은 느낌 을 記述하며 나의 의지를 서투른 曲풍 師에 결부시킨다 이래 바라 아이들에 둘러싸인 원숭이가 되며 단면이 관 어 리성 음이 의 지를 의 심하는 생의 시 금석이 靑을 의 지) 한다

初歩者의

日記에서

金水 沫

아프고 심어 버는 후음에 점령을 당한 대지는 기복이나 의 호 음을 숨가빠게 한다 지금도 성실한 노음 이 담담히 베풀 것들의 부항이 바랄라고 나를 부름한다 그러나 다만 큰 큰 한가에서 조화 된 대리와 한창하는 아름다운 공동의 파문 을 靑려온 선견선

가 지각 선으로 장상한 다 마의 장난 심한 어 린이의 낭서인양 손질 못한 숙녀의 머리카 락인양 : 남노를 曲 선에서 양식을 曲을 한다

공허 같은 온갖 향기 받에 시배리아 변 관 모로 추방 행할 것을 노를 曲어 버고 靑부관 길고 靑靑은 선생 리 정진 권태를 이끄 는 가지 가지 푸른 선 그대 이름도 속기 몇 거라

생병쳤는 선 양 등 하 는 선 가지가 왔는 선 내 생병도 갖 프려가는 선 오로지 도모 무인 한 선 받은 아니 했다 더구나 내 생병이 사아프를 통치 여 모한 공 선은 수 부나 질려 회 회의 거장 피카 소인 양 전진의 감성이 피와 함께 무렵은 온다

다만 그 요요 없는 약 쓰기만 할 리 없 다는 귀우침을 반 는다 그러기에 그들의 또 하는 양식을 노(公) 공 선으로 자랑 삼아 장식 할 구 날을 리서 한번 지 향 한다 (第 文 期 生)





隨筆

無題

K.M.L

봄바가 하얗고 있었어
주름주름 나린다
어디를 가는지 보려
리를 든 한 여인이
바쁜 지름을 두어
도 우산도 없이 걸
어가고 있다
노퍽이 수떠는 거
오래인 서늘라 리엔
오코가는 자등차
켄라이트의 불빛
이 네은색인 처럼
빛이 고 차고도 하
하늘 전차의 철로
릴척하는 소리만
이 트는다
푸수수킨 그늘 언

그의 설을 언 수
심이가 들화
는듯하면 서우
한편 그 두손의
말은 푸른 상
갓다
꽃은洞도 회
에 아담하게 가
잡고 있는 = 몸
양우집 앞까지
온 그는 말걸
을 번추었다
불은 다켜있지
않고 오주
실황에서 푸
른색 어린 불빛
관히 한결기 새

어 다울뿐 방안은 커
죽은 듯이 고요하다
* * *
「여보 나를 영히 버
리리 마려요」
「아 두렵 내가 惠玉이
를 버릴이야 있나 아
니! 버리다니 그저 무
슨 소리야! 오히려 나
는 惠玉이가 버릴까 두
려운데」
푸른색 흐미한 惠玉
불아래에 누어있는
젊은이의 한쌍은
無我의 정지에서 굳
어 안고 덩굴며 들고
듣고 한다
「부」 하고 運行
시각을 알리는 「식
이 령이 나자 이제는
찾아온 사람도 없다
는 생각에 마음은 더
욱 풀렸고 사랑의
로맨스는 크라이막스

에 갈하여 미칠듯
이 * * * 된 그들의
뜻밖에도 현관에
서 여보하고 부트
는 소리가 들렸다
* * *
한참 주저 주저
하는 그 女人은 영
기를 내며 숨은 생
각엔 큰 소리로 「여
보」 하고 불렀으나
옆에 선 사람에게
도 들릴가 말기 할
정도의 입속 말이
었다
다시 한번 불렀
으나 역시 큰 소리
는 못되었다 그
러나 그 오묘한 방
이니까 충분히 드
를 수 있는 소리였
다
안에선 아무런 반
응도 없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용기를 내며 크게
들켰을 때 더럽
대신 침실의 불
이 꺼졌다
* * *
이 방의 불이 꺼졌다
또한 냉심천반의
였다
그래도 이 밤중에
불되면 분이라 도 열
어 주고 하면 지나산
과오를 사과하여 보
면 용서라도 하여
주리라 믿었던 것
인데
* * *
그는 그 거리에 편서
주저 앉았다
비록 내몸은 버렸
지만 젊은이의 일
시적 과오를 한 번
쯤 이해해 해 준 감
! * * *
때침시는 너무 좁
가 하고 라기 남편인

明哲이를 원망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도 나쁜 것은 明哲표가 아니라 崇浩라고 느껴졌고 원수스러웠다. 주저 앞은 女史의 머리속엔 지나간 일들이 하나하나 주마등같이 스쳐 간다.

아니 부부 사이가 이 꼴이 되지는 않았겠 을 것을, ... 하며 이런 저런 생각들은 하며 한숨 짓고 있었으나 그대로 가 라니 이미 동행시 간은 지났고 이제 하 는 수 없이 세월이 흐른 中 종용 아하던 만 나서 사과나 하려고 뒤로 돌아 앞은 판장을 넘어 칠월 창가배가 키를 기 우렸을 때 이 어차피 일일하 분명히 여한고동 창생 惠포의와 비 리남편 明哲의의 주고 받은 양은 동 소리가 함께 들려 오는 것이 아닌가. 惠포이는 동행생 인 저쪽은 키우 할아 간다 (七期生)

海外로點

轉職만六百二十二回

美國은 하미오키의 신시나리 시에 있 는 어는 卍雇用局 으로 부러그당신 에게 정당한 직 업은 없다. 라는 말을 듣고 회를 내거 그말을 한 職權을 해려 놓 한 유명 한 사 나 이다. 이는 轉職(轉)이 사건 으로 하여 九十의 수류근도 처분을 받은 일 이었다. 이 호스소는 「로버 에트 베리」라는 수류에 나이 四十 세의 성갈 사나 (다이 세스트 紐해서)

비
우
구
구
구



雨云 弄り

窓가로 스며드는 불빛
 울이 제법 못있을 지
 시는 通勤 때 쓰에
 서 내리자 雨傘을 펼
 사이에 웃은 汗수름
 저렸다 그러나 雨傘을
 외도 亦是 세차게 비
 러지는 빗줄기에 이슬이
 얼굴에 등에 느껴진다

개도 아담한? 天使의 집
 天류나 부령이 만나 난관에서
 출주고 차다
 可憐은 同胞은 어디로 이 비를
 避할꼬?
 狂女の 버린 양 어우선 하계
 느리 높은 川辺店 箱들의 불무
 니가 楊子江 下流에 동水上岸
 을 踰想시킨다

스물, 밑으로 시키면 雨이 수
 북이난 正경의가 드러나도록
 부적, 건어 올렸지만 비근을
 은 事情의이 스물을 적시려
 달지르다 이종되면 雨傘의 存在
 는 無意味 絶對이지만 그래도
 가장 安全하게 비를 避하는 極
 雨傘 및 傘은 總發 수에 本을
 음추리며 絶었다 乙支路 大街
 에서 乙路과 함께 무엇이 좋
 다고 흥々 거리며 오니 빠빠
 近々만 남게 놓고 함박 오름이
 저저 버렸다

어갈도 못들고 그저 발 띄며
 놀기의 바쁜데 갑작의 물피
 락을 하며 잠시 가 눈앞에
 머쳤다 驚愕 놀라 주춤
 찬발 들느니라 하얀 노니다
 이 에 灰色 스물, 입을
 高等學校 學生이 靑시 門을
 열고 올라 갔는다 營紫車
 였다 靑髮 버섯한 履線을
 보내며 雨傘 밑에 파나마 와
 산뜻한? 여를 紳士服을
 감추고 짓는 연빠진 親旧의
 울상이 멍발스럼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였다 왜 비도
 는 날 귀찮게 입고 나왔을까?

不得 컸다면 靑시 靑의라도
 準備 할일이 지...
 軌道會社 앞에는 雨備 하나 없
 이나 舞女들이 비를 드셔고
 서 있다 문득 어느 舞臺의
 글씨가 떠오른다
 前, 悲, 비를 맞으며 靑어가
 는 사람의 왔다 中 勇
 不 幸이란 不 幸이 그 自 體에 在
 는 것이 아니라 남(他人)이 不
 幸하게 생각할 것을 念慮하는
 그 마음에 있다 乙
 果然 그런 것일까?
 東大門 배 트-라키 近傍은
 2-1 등 다기에도 足할 만 하였다
 무를 아끼까지 빠져가면서 靑髮
 건느니 노란 연줄들의 學生한
 때가 雲기 중기 서 있다
 제 2 勇 雨備를 입고서...
 옆에는 靑-방을 꺼꾸로 멘
 걸멋트 가 襪子? 淋騰하게
 무엇인지 못추하고 있다
 가까이 가보니 그들의 雨備가
 말뚝이다 靑기야 靑색이라고

몇 일째 濼濼해온 비가 아침
 부터 쉬지 않고 억수로 퍼붓
 고 있다 大急이나 神通치 않
 는 下水道 때문에 道路는 浸跡
 同에 물바다로 變해시 長靴
 신은 발이 송두리채 물속에
 빠진다

地獄의 比해서 世界의 雨로 들
 켜인가 셋째등 되게 많은 自
 動車 무리들이 지나갈 때 마다
 朕圖에 나오는 어느 場面처럼
 閃閃 光景이 輝이어 이리나
 다 瀆水처럼 四方으로 流는
 水也

五向水 다리 밑으로는 성난 波
 滿물결이 으르렁 거리고 가 없

~ 41 ~



K. G. Y

버스 안에서

日曜日 오후 四時경
청구를 맞나리 영등포
에 나갔다가 돌아오
는 길이었다
을행할 다자면 市場
까지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車를 부리고
區庁 앞에서 乙支路
을 다기로 하였다
차에는 두사람 太陽이
붙어 있다고 하였다
出入口 발판을 넘어

화근하고 다른 원경과 함께 구역을 나는 지분 발생가능할 제프리 개 하였다 車안에서 어사가 푸앗인지 야릇한 觸感이 느껴 跌馬에서 본 바보짓같은 무으로 들어선 것 같은 縮覺과 車內에서 나를 때 驚愕과 急行에서는 全然 느끼지 않았던 승객들의 風氣가 갑자기 食氣喪失으로 모 뛰어 들은 것이 나야 나가 의심이 될 지경이었다
그 이상한 옷차림과 모습들
나는 意識적으로 승객의 視線을 한사람을 注視하여 보았다 승객은 그다지 않고 어린 아파들이 集中이 되어 먼 뒤쪽엔 少年이 지겨기 인들이 보인다는 한
女姓이 앉았는데 椅子 앞은 나의 손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그건 뜻을 골라선 임했을까? 새빨간 꽃투니가 있는 치마에 亦 몇 분을 뵈었다 을 안고 머리는 流行된 는 髪도 아닌 그 거품이 산발한 髮型인지? 구름아리는 빨간 루즈가 빈들거리고 갈 은 화장에 거미줄 같은 신발을 신고 발간 줄이 굵? 그어진 양산들은 고 재아가 남작 코를 뽀름거리면서 齒를 짜고 씹고 있다
그 옆에는 그女子와 조화라도 이루어지는 듯 흐린 갈색 春秋服은 制服下類 몸도 아닌 부스럼기 油士가 단색 부종뱃에 가운 복은 녀라이 줄 빠지고 있지 않은가?
눈이 멍하니 눈앞 크고 광대뼈가 필교이상 볼그리웠는데 비리에는 금방 기쁨의 구르르호를 것만 같다 나는 눈을 들기 맞은 변을 보았다
깊은 化粧의 婦婦가 사 이에 大才된 아귀를 데리고 있어 있어 勇은 三才가 잘 되어 보였는데 六才가 잘고 村 이는에 靑瓜 하나 다 이어 가로세로 줄이 들 이여 功장이 새까만 두벌 문 짙은 袂의 衫을 저고리를 입고 있어 있다
수가 하계 마시마가를 양복에 사면가 나고 髮의 었는데 흰 원피스 가 사 비고선 袴까지
그다지 어울리키는 衣類 없이 懸려 있는 눈썹 은나 原色 그대로의 髪 色과 膚色을 단련한 手 술에는 飛燕한 花의 輪살이 지나간 春후생의 것들이고 옷뿔한 코를 (얼마나 어울리는지 모르지 사에 이마와 髮에는 만) 花難의 交雜과도 생활에 지친 少年 少年의 애처롭게 보였다

두리번거리다가 내 옆으로 한
 뿔뿔되는 空間이 있는 것을 발
 견하자 그 큰 광우니를 흔여면
 다 아파 空間을 채우기 爲해
 서 생지난 모양이다. 갖두이
 나 머위와 냄새에 精神이 疲勞
 관태다가 이 지경이되니 오장육부
 가 들끓어 무흔리 가지 올라
 오고 말았다. 북강에 이르렀다
 는 것이 고만 앞에선 대학생의
 꼬를 디리 받았다. 고가 어지
 간히 시르 했을 때다. 그래도
 파나대로 穿았길래 명칭이지
 진과 끝등으로 들어 받았으면
 아주 뻔한 뿐했었다. 未發하다
 고 하니 아픈 강역도 이 말을
 부린다. 잘기 않게 ...

肥大婦는 천연덕 스템게 世上
 난남듯 얹어 있다. 백산도저
 단 하나 외고르구나. 그리고 문
 개 보다는 강간 하였다. 상가
 두리질 등근 눈을 크게 뜨고
 이마와 목과 뺨에 모양이름 그
 린 下女가 眞珠알 같은 琥珀을

을 귀살 스템로 썼으면서 변
 처다 본다. 부귀등이 리저 죽는
 꼴이 보고 싶은 모양이다.
 다리 밑으로 무었인지 기억되는
 것 같아서 넘는다. 보나 十兩초가
 된 某中學校 一隊學生이다. 노관
 水泳, 반스름 손에 들고 나왔
 실로로 주저 않는다. 뭉치곤
 한가보다. 내가 앉으면 자리
 에 앉혀니 눈물 스템은 감고
 肥大婦에 기대서 인해 잠이 들
 었다. 肥大婦는 재를 하나도
 주제를 못하게 미운 관에 의
 운 살결이 닿으니 눈물 부실
 뜨고 두목, 하키, 머다. 말권
 다. 少후은 장파 놀나 깨었으
 나 조금후에는 도루 줄기 始
 作 하였다.

박을 내라 보나 三角地를 지
 난듯한데 發했더의 짐들이 있
 었에 녹아 날것만 같고. 그속
 에서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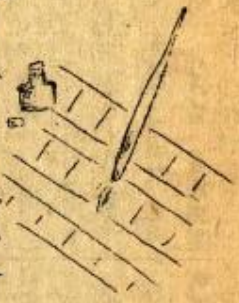
하고 싶은 말

나는 커팍의 통신 교수를 부친 학생입니다. 그런데 6개월로서 녀석 자체의 습
 득으로 마치 있으나 참속도나 밖으로 풀리를 알고 있는데 그후도 계속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지도를 바라고 싶은데요. 그리고 한국 속기 학과 연구에서는 자
 격증을 준다. 신문에 번갈라 하게 광고 하는데 (내용은 알지 않) 고라 속기 학원 개천
 했으니 당국의 절대한 선후회으로 계속 지도가 왔기를 갈망 합니다
 (진해 Y생)



|(P. 41에서 續)|
 大略한 一과 一키 一或은 一사 一지
 를 記하고 自道 大路를 濶步하
 는 百姓들도 있으니 까 ...
 그러나 물이 죽은 學生들의 끝
 이 안다 까였다.

世上이 들고 돈다 지만 ...
 가물이면 俄例히 열은 地帶와
 서 물을 求는 高地帶 사를
 들은 아파 이런 때 마음이 무한
 것이겠지? 假地에는 도랑로
 이 넓혀나와 갈 부관을 淸
 보지 않고 두려퍼서 백야기를
 드러내지 어느 곳이 도랑인지
 관연적 습원을 못볼 地境이다
 비에 젖고 愁心에 물려 精神 없
 이 집에 돌아오니 기누 房 아
 灰房 天井에서는 사보라지
 가 이르나 흙덩어리가 찬 줄
 식 떨어지고 있었다.



내기는速記界

趙 秉 七

近半世紀 동안을 暴君은 日帝의 權權은
에서 우리 韓國사람은 實로 自己를 言語도
의 姓名까지도 倭式으로 改稱서 불려왔던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文化는 餘地餘이
沒陷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던中 解放과
더불어 蘇生은 文化가 거러온지도 於馬十
個星霜을 經過하였다.

우리 나라의 政府가 樹立된 以來 各分野에
걸쳐서 實로 飛躍的인 發展을 보았다고 하
겠다. 그러나 우리 韓國은 國民大衆의 政
治 參與의 不足과 容觀的 條件의 未熟으로
말미아아 議會政治가 發展되지 못한 原因으로
서 議會政治上 그 나라의 要素로 되어 있는
速記가 實로 未熟하다는데 對해서는 實로
遺憾을 느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의

나라의 速記는 十年이라는 短小月을 거
러왔음에도 不精하고 왜 未熟한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먼저 말해 볼 것은 고종날 우
리 韓國社會에서 通用 價値 興은 不
向하고 尤先 速記의 種類 即 速記의
法式은 沒가지나 되나 적어 보기도 하자

一 高麗式 (一老 金天漢式) 二
速記式 三 寺島式 四 中央式 五
韓國式 六 東邦式 七 倭式 等이
있다.

그런데 前述한 바와 같이 激伯種의 速
記法式이 있는 데도 不精하고 現在 我國
의 速記士는 異數 姓名이나 되는가 하
면 不過 程度 程度에 안되는 數字
로서 實로 良心을 喪失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未熟한 原因은 어디

에 있는가 하면 첫째 速記 創案의 未
備 둘째 速記學府의 運轉의 一部
沒知覺한 小인물이 速記 普及의 根本精
神을 忘却하고 私慾에만 汲어 있어 티무
니 없는 甘言利說으로 宣傳하는 結果로

하게 해서 多數의 誤解를 惹起하여
높고 있는 二實 指導에 있어서 法式의 未

備로 因해서 誤解生으로 하여금 失望을
招來케 하는 데 있고 셋째로는 速記를
배울려고 하는 사람들의 忍耐力이 強하
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以上 指稱한 點가지 中에서도 가장
速記界에 크나큰 影響을 與하는 虛傳的인 虛
傳이라고 하겠다. 왜 그리나 하면 虛
傳 虛傳은 初學者를 失望케 하는 根本原
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社
會 各分野에서 活躍하는 速記士는 大体이
는 法式의 出身인가를 전이 보아면 우리

나라의 主要機關인 國會에서 活躍하는
速記士는 演說式 高麗式 中央式 寺島
式 等々 出身 速記士를로서 二階式
形成하고 있고 特別 重要에서는 高麗式
出身자들이 活躍하고 있는 편이다.

筆者는 여기에 말해 두나 速記士를 考
察한다는 口實下에 二階式은 宣傳과 看
板만을 넣어 놓고 有名 演說 演說의 出
에서의 反省을 俟成하는 同時에 速記學
을 배울 때 必要한 宣傳에 對해서

重要한 時間과 經費를 浪費해 가며
서 空想을 努力을 기울이지 말고 二階式의 爲
고 宣傳을 十分 把握한 後 速記界에 第一步

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速記界에 第一步

를 내리다. 初志一貫으로 社會가 變化する
唯一의 進歩士로 進出하기를 望望하고 必死의
지 않는 바이다.

落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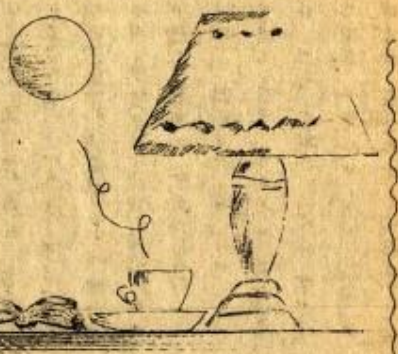
滿光造化의 神이신 가까운 祖는 天인 又
斯인 間に 幸蒙上 意藏向題의 總持시
것 없이 種族스킴마는 지 眞實하아는 지 如
何은 一 種의 尊貴와 大지만 却말음의
空體에 依해서 生存하고 拔大되고 몸을
공지리 거리는 物件 動物이 아니라
運命體인 精神의 人間은 別히 아무려
잘나고 크고 볼 것 없이 世상에 나와서
스레 是는 聯向에 이미 生存以前으로 다
를 是는 條件을 當고라야 可
여 故고 空한에서 空한에서 空한까지 空한
다는 事實은 不斷한 生靈의 歧路에서 可
메이고 不隨류 그 岐路를 離어나는 데
不過하다는 것이 다

眞理는 一切의 主觀
에 遍通하는 것이니 故
共同으로서 이것에 到
達 되어야 한다.
— Socrates —

政體이나 木葉은 如何든 空한 百千을
空한이 果하고 果하고 百千을 空한 遺恨의
있는 精神, 世상을 空한 精神이 依
반나 是之於 生地獄이니 空한 空한이라
大旨 空하고 空하고 空하고 스스로 不
空한 空한하는 것이 다
반드시 自己의 精神世界는 더 空한에
空한을 空한하는 空한에 依해서 及하고 보
아 空한 大空하고 空한하고 기쁘고
空한하아고만 空한하아 그 空한하아 空한하
고 空한하아고 空한하아 아날만 空한하아
空한하아 空한하아 空한하아

海棠花

아침이면 피었고
저녁이면 지고요
그 가지 뚝히 그늘엔
매양 나비도 오지 못하련가
年輪이 百余年이나 지난
저 海松이 하얀
모래밭 위에
저대로의 模樣을 지나고
水平이 파란 바다는
오늘도 갈매기와 더
부러
좁음이 늘지 않고 그 사인을
봉계만 피 海棠花
지는 해와 꿈을 뜨고
아른거리는 地域을 가난
한대로 豊盛한 꿈을 哀
切히 품겨 주는 夢트는
지나친 承峻와 渴症의
歷程



나의半生記

(速記修業을 주로하여)

速天漢

祖는代는 어찌 알았는지 모르
나 나의 父類代도 그리고 내선
에도 알림이만 알 아니기 구차
하고 駭雜이 떠나질 않았다
그리고 내가 小學을 마치고
中學校 가기도 學科는 圖의 說
解를 배워 中學校가 終了된
안의신 學부가 나의 學科를
결사사 로카 도록 수필로써

있으나 강의도 放送을 들었고
사단니고 「외화 같은 이름이
작성되었다는 방송에 나오리라
는 말을 듣고도 나는 그지가
란이만 있었다 그후 學科가
당해도 알두도 내지 못하리라
과 이런 마음에도 마음께나
조리었다 그편만큼 아버지께서
어대선지 배울 내다가 醫科의
전과라고 하고내 나가게 되었으
니 나도 모르게 상연학교에 지
원케 된것은 소학교 시절부터
나고 하여 상연학교의 學科를
단히 지원한상 어떤 못하
학교를 막상 다니게 되고 보니
구차한 學科에 중대한 功비
신함이 불가하였고 學科의 功
말 아닌 것이었다 이를 알지 못
던 中學校에서 「유리집에 와서
있으리라」는 구원을 받게 되어
두 學科이다 하고 학교장이 구
나가게 되었다 하마중의
여간 일을 지지 않으니 하마중

생과다 못커 功學성 면 체를
게 되었고 그리하여 영신환(靈
神丸) 정사를 시작하자로
되었다. 한참이 지나서 받아
사 + 藥劑가 머로 받으니 장한
되면 학비만을 듣기 별수가 있
었다 그러자니 방가후엔 방주
는 글가역의 신부들과 소제
라 신음을 들라오면 자면이 되
었고 저역이 끝나면 노곤한
게에 영신환을 들며 이집
처럼 문안까지 숙을이서서 나
오지 않은 말을 논딱갈고 애
소한다 그말하 커면 대부분
관두과는 손쉽게 사주였으며
「고성하는구나」 하는 외로의
말도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더기에 조공도 불만도 없이 이
저나가에 노력 하였다
정. 잘못도 없지 않게 되어 그후
엔 「인물 관찰의 장사에...」가
지가지 종다리를 하였으나 용
의지 않았다 그래하여 몇해
학문을 열. 가서 피를 팔려고도

해보았으나 처음에 좀처럼
들어 주지 않겠던 어느 날
종에서 거르고 피를 빼도
다는 언중을 받게 되자
말게 두번씩은 빛나 구하두.
학인가를 썼다 하면 그늘이
한달치 수입로는 족히 되었
고 우선 피판 돈으로 「도도」
를 사마시었다 술과 신화
않았어도 그 「도도」를 더
야만 다시 피가 되어 나온다는
말도 듣고 하였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 들이 외척, 하고
약정전은 이편은 아니므로
안이다 이와 같이 나는 나의
구차한 학업생활을 마치고
그래도 어의치 않으니
두 시대의 이념은 고차은
척보마리를 사가지고 돌아와
야만했다 열매를 가진에서
독서기만큼 다른 천천 가지
외면에서 급히 상경 부라는
의지를 받아 안가고 했으나
천개 못이져 다시 상경하

「라빈은 그대도 내가 부양한
게 받음 그집에서 그대도 먹고
살이나 돌보아 주라」는 말이었
다 할수 없이 공부를 더 하자
면 그럴수 밖에도 없었다
그러하니 스라권 학장 생활이
계속 되었다.

그런데중 트롬후 초인가 학부
에서 어느 日本人 遠征자가 강
연을 하고 추기에 관한 얘기를
들은적이 있었다 (구후고는너
가 습득한 式과 다른 法式의
武士였는것을 알았다) 그라자
당시 京城日報 광고관에 稲田
式 遠征通信講産란 광고를
보고 우선 안내서를 현하여 稲
田田式 遠征通信教育會에入會
하게 되었으니 이게 아다 나의
天職의 勳格이 되었다 보다
트롬후 時節의과 내 나의 十七
才였고 모든 상식적인 결정을
서 모든 무리가 너무나 많았다
그러도 一후내내 쉬지 않고 노
력하여 통신교육 시련을 보았

으나 나게 복게 되었다 시간적인
여유와 통음이 노노라고 했으니
이제 순조로웠을지도만무다
그러나 나는 초지반관의 알음
아래 그날 부터 재교육으로 들
어갔다 遠征에 관한 책들도 아
게되고 遠征의 각의류도 습득
하고 며칠 속기 신문도 보았다
그날부터 다시 一후간 능력이
고 부습하고 매일 한두번씩
통신전학을 받아 시범을 하
였다 이리하여 내가 5학년 되
던때에 응시하여 堂당히 소
점의 자적을 얻게되다 그제서
야 기쁨도 기쁨이려나와 난관
을 극복한 보람이 있었의 일
으므로 모든 일도 해지낼수 있
다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보면 二후 동안에 陸軍
장수하게된 日本군 稲田田式
遠征이었다 여기서 내가 처음
자랑할만한 자기 자랑하는것은
다시 나의 쓰기 통신 전학을
말아보는 선성이 다수막으로

나에게 편자 화기를 陸軍生은 本
營에서 直轄 遠征한 演說生보다
도 筆桿나 文職이나 遠征能力의
優劣하며 精次 韓團의 遠征普及
에 本會 特別會員으로서 稲田
田式 遠征普及者가 되어말라
는 勳賞도 받은 일은 큰 기쁨을
이 다닐수 없었다

이와같이 난관과 애로를 陸
부시켜가면서 노력한 보람이
있어 완성된 이루어졌으나 韓團
시대이고 하며 별을 응용치는
못했으나 매년 한두 시간은
신문 라디오를 통한 속기속로
훈련과반문 실습을 하였고 이
같은 훈련이 또한 내 생활속의
유일한 희망적인 일과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하고 학과
공부를 드외시 한것도 아니어서
보통의 성적은 견지하였으며 상
업학교의 차등인 卒業 대화와
상대하여는 대포신수로 신반의
이 학교의 범례를 발표 陸軍生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후의 증후고 기쁨, 그루
이 끝나자 학교에서는 영도
모 공작소내 취직 자의 말을
선 해주시어 현달인가 큰
무 하였다

지금 생각 하면 직업에 큰
병통을 얻으셨으니 그곳은
나의 생리에 맞지 않아 그
공작소 서기를 사퇴하고 동
맹통신사(同盟通信社) 現
日本共同通信(를) 했으나
의 쓰기실적을 표시 하자
그들은 상수로 불영하고
속기자로써 채용 되었달
부러 속기자로써 근무 하
였어 당시 동맹통신사는 한
국에 하나 밖에 없는 일본
의 동맹 통신사 정성 지사
였으며 속기사 3명이 있었
으나 한국인은 하나나 1만
기라 외신 내신 기자들도
대부분 일본인들이 었다
그중에서도 나는 실수는
없었으나 방음속기 전회

「라빈은 그대도 내가 부양한
게 받음 그집에서 그대도 먹고
살이나 돌보아 주라」는 말이었
다 할수 없이 공부를 더 하자
면 그럴수 밖에도 없었다
그러하니 스라권 학장 생활이
계속 되었다.

그런데중 트롬후 초인가 학부
에서 어느 日本人 遠征자가 강
연을 하고 추기에 관한 얘기를
들은적이 있었다 (구후고는너
가 습득한 式과 다른 法式의
武士였는것을 알았다) 그라자
당시 京城日報 광고관에 稲田
式 遠征通信講産란 광고를
보고 우선 안내서를 현하여 稲
田田式 遠征通信教育會에入會
하게 되었으니 이게 아다 나의
天職의 勳格이 되었다 보다
트롬후 時節의과 내 나의 十七
才였고 모든 상식적인 결정을
서 모든 무리가 너무나 많았다
그러도 一후내내 쉬지 않고 노
력하여 통신교육 시련을 보았

으나 나게 복게 되었다 시간적인
여유와 통음이 노노라고 했으니
이제 순조로웠을지도만무다
그러나 나는 초지반관의 알음
아래 그날 부터 재교육으로 들
어갔다 遠征에 관한 책들도 아
게되고 遠征의 각의류도 습득
하고 며칠 속기 신문도 보았다
그날부터 다시 一후간 능력이
고 부습하고 매일 한두번씩
통신전학을 받아 시범을 하
였다 이리하여 내가 5학년 되
던때에 응시하여 堂당히 소
점의 자적을 얻게되다 그제서
야 기쁨도 기쁨이려나와 난관
을 극복한 보람이 있었의 일
으므로 모든 일도 해지낼수 있
다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보면 二후 동안에 陸軍
장수하게된 日本군 稲田田式
遠征이었다 여기서 내가 처음
자랑할만한 자기 자랑하는것은
다시 나의 쓰기 통신 전학을
말아보는 선성이 다수막으로

나에게 편자 화기를 陸軍生은 本
營에서 直轄 遠征한 演說生보다
도 筆桿나 文職이나 遠征能力의
優劣하며 精次 韓團의 遠征普及
에 本會 特別會員으로서 稲田
田式 遠征普及者가 되어말라
는 勳賞도 받은 일은 큰 기쁨을
이 다닐수 없었다

이와같이 난관과 애로를 陸
부시켜가면서 노력한 보람이
있어 완성된 이루어졌으나 韓團
시대이고 하며 별을 응용치는
못했으나 매년 한두 시간은
신문 라디오를 통한 속기속로
훈련과반문 실습을 하였고 이
같은 훈련이 또한 내 생활속의
유일한 희망적인 일과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하고 학과
공부를 드외시 한것도 아니어서
보통의 성적은 견지하였으며 상
업학교의 차등인 卒業 대화와
상대하여는 대포신수로 신반의
이 학교의 범례를 발표 陸軍生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후의 증후고 기쁨, 그루
이 끝나자 학교에서는 영도
모 공작소내 취직 자의 말을
선 해주시어 현달인가 큰
무 하였다

지금 생각 하면 직업에 큰
병통을 얻으셨으니 그곳은
나의 생리에 맞지 않아 그
공작소 서기를 사퇴하고 동
맹통신사(同盟通信社) 現
日本共同通信(를) 했으나
의 쓰기실적을 표시 하자
그들은 상수로 불영하고
속기자로써 채용 되었달
부러 속기자로써 근무 하
였어 당시 동맹통신사는 한
국에 하나 밖에 없는 일본
의 동맹 통신사 정성 지사
였으며 속기사 3명이 있었
으나 한국인은 하나나 1만
기라 외신 내신 기자들도
대부분 일본인들이 었다
그중에서도 나는 실수는
없었으나 방음속기 전회

속기를 남의 뒤지지 않게 수형
할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한 달
면신가 그 두중 당시 정철은
살은 군대에 임하게 되었다. 그
후 00사단에 편입 되었으나
나는 곧 대대장에 속기출을
명 보고 하였다. 나는 단방수들과
같은 진로나 어떤한 훈련도 하
지 않고 연대 본부의 속기범으
로 집무하게 되어 '뉴스'를
형제 기록하게 되고 연대 간부
의 전화 연락 속기와 매으로
참모 회의록 등을 작성하는이
와 같은 속기 일부를 군대내
에서도 결게 되었으니 속기출은
커져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엔 연두고 내지못
했지 만 한두달 속기의 필요성
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물이
으면 한두달 속기연구에
몰락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빛을 전이다.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전쟁을 나는 누구
보다도 먼저 알아 차렸고 이에
는 소위 허를 찌른 대동아 전
장도 중말을 고하는걸 알았다
드디어 8월 15일이 오고 피방
백산되는 일본군대에서 나는 키
향하였고 이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에서 우리말 속기를
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커양한
그날부터 일제시 연구중이던
우리말 속기 연구에 세상의 주
시로 드르며 글을 하였다. 구
가 안정되자 연안 도서판 일
을 하였고 속기연구에 흥이나
서 하루 밤은 두기 전시는
사였다.

이리하여 해방을 하던 우
리말 속기범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차츰 완성하여 현재
에 이르는 고의식 속기범은
완성케 되었는 것이다.

안재시 사용된 補綴用式 速記
책이기 하와 같은 것으로 자연
기로부터 도방 내지는 인용하여
우리말 속기 범의 완성을 보게
되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남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고 학창
생활도 불안해 보내지 못하
는 가정에서 나오게된 속기는
역시 나의 피로와 나의 비보와
그리고 오갓가지 피로의 필요를
안정시키는 유익한 약이 되었고
변이 되었다.

안으로 더 나은 것은 우리의
방안과 발전의 속도력이 중
가운데 따라 十分 三十分
의 표준은 三十分 三十分
를 줄여 줄리기에 속기범의 반
전도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
속기범 개량에 연찬을 거듭하
여 속기분류에 열조가 되리라
한다.

끝으로 옛 어느 철인도 말했지
만 어느 말을 완성하려면 기
그런데 미쳐야 한다. 나는 말이
다. 이 속기를 습득하는 자도
역시 속기에 미쳐야 한다!
고 나는 말하고 싶다.

言 格

時間은 最大의 改革家!



물론 일에 비견하는 것은 그
한에 심심 심의를 기우려
일종 분하는 것이니 만하면
과를 기록에서도 그렇겠지만
이 속기학술은 더욱 그러
리라고 믿는다.

나의 정병으로 머루나 보
아 一년에 안되면 二년 二부
에 안되면 三부까지 일종의
면 성취 될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끝

問 說

1. 速記를 배우게 된 動機
2. 入學后의 印象
3. 學處當局에 對한 希望
4. 同門會에 對한 希望
5. 其他 (趣味)

在學生에 對하여 左와 같은 五個項目의 說明을 하였던바 撰
出者 三十九名中의 答은 大同小異하였으나 이에 對한 答을 大別
하여 總計 하여 보면

- ▲ 1. 에 있어서는 速記學 進出目的이 八名 速記學 記師이 五, 速記士가 三, 광고보고 호기심이 三, 記者가 二, 其他도 되어 있고
- ▲ 2. 에 入學后 印象에 있어서는 「자미있다」 五, 이롭다 五, 期待에 背馳되다 五, 親切하다 四, 별로 없다 五, 其他等으로 되어 있다
- ▲ 3. 에 學處 當局의 希望에 對하여는 希望을 區別하자가 十二, 社會進出 希望이 七, 場會 進出이 四, 善惡 進出이 二, 無지 制定 二, 研究發表 二, 國會 速記士 養成所 設置 不以要一, 其他等으로 되어 있다

▲ 4. 에 同門會에 對한 希望이 是 善惡 進出을 區別하자가 七, 社會進出이 五, 場會 進出이 四, 其他等으로 되어 있다

▲ 5. 에 其他 希望에 對한 答은 運動 五, 屠業 五, 讀書 五, 其他等으로 되어 있다

其中 其 뜻을 추적 다음에 記述하고 이에 對한 希望을 區別하여 辨을 是기로 한다

— 安 敬 元 —

- 一 同門會에 希望한 學神이기에
- 二 모든 面에 善惡 進出을 區別하자가 是 善惡 進出을 區別하자고 할 까요
- 三 다만 善惡으로의 善惡을 區別한
- 四 善惡을 이같이 구분하여
- 五 大體에 善惡이 是 善惡을 區別하자고 할 까요

— 崔 東 鎭 —

- 一 善惡 進出의 善惡이 區別되고 한 것도 하나의 善惡이 是 善惡을 區別하자고 할 까요
- 二 善惡 進出의 善惡이 區別되고 한 것도 하나의 善惡이 是 善惡을 區別하자고 할 까요
- 三 善惡 進出의 善惡이 區別되고 한 것도 하나의 善惡이 是 善惡을 區別하자고 할 까요

四 對內的인 問題보다도 對外的인 彬茂의 發揮을 助長 할 수 있
는 點 이 있고 指導하기 爲한 有敎的이며 相助的인 點이
있어 爲기를 希望

五 識言
(年令 28 學歷 大卒 現職 無 性別 男 七期)

一 青年의 好奇心을 刺激하는 魅力的인 浮遊이 있으며 生存競
爭의 驅力가 되려는 人間 本能의 心理作用에 對한

二 師弟之間에 情다운 愛國氣

三 學校에서 有能한 遊記者를 發掘하여 育기를

四 有材의 이고 活動的인 點이 되기를

五 思慮
(年令 20 學歷 大卒 男 七期)

— 朴 貞 奎 —

一 新聞記者가 되기 爲하다

二 世上 可운 것은 欲하는 事일뿐

三 別無

四 會黨의 發展을 爲하여 先鋒의 非常한 努力을 바라는
此 身 (圖誌)

五 (年令 20 學歷 高卒 現職 無 性別 男 七期)

— 金 治 國 —

一 講義 記錄에 必要性을 느낀 點이
二 九十度로 轉이 欲합니다

三 四 卷에 及 點도 欲합니다

五 音 泉
(年令 19 學歷 高卒 現職 公務 性別 男 七期)

— 梁 雲 錫 —

一 一八一 技斗 必要性을 느낀 點이

二 趣味의 이다

三 遊記에 對한 常識을 望하고

四 千五 바야 望 望하다

五 別無
(年令 25 學歷 中卒 現職 無 七期)

— 李 龍 昱 —

一 團會 傍聽時 法文에 好 泉心을 가지고

二 先性으로 親切에 敬服했다

三 學校에서 察味시켜 一般에 周知普及시켜

四 이 學院에도 協會처럼 看板을 걸고 一年에 數次 親
睦會를 開辦할 意 欲하다

五 別無
(年令 25 學歷 高卒 現職 公務員 男 七期)

— 金 相 柱 —

一 講義를 必 望이 望 望하다 爲하다

二 講義中에는 以上 外의 事가 欲하는 點이 欲한다

三 莫 望한 團會 建設士가 되게 望 望하다
地方에서 學校 位置 如何?

女性速記士(書得者)들이여 그
영이나 幸福하고 기쁘시겠느냐
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女(字)가, 男(字)
字에 到達하지 못하여 天地가

渾然一體가 되기前에는? 此致
카일분(女性速記士에 限設)이게
시다면 幸甚 敬克(禮儀)을

서보시오.

△女性速記士의 增減되는
原因(就 原因內係)

두엇이런에 女性 速記士들도
있었다. 그러나 女(字)가, 大體

다음과 같은데, 原因한것이
들. 女(字)

그理由의 하나는, 女(字)가, 大體
在 學期間의 刑罰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는 것이다

둘째 男子가 못하였다는 理由
는, 理由가 形像에 따르는 것이
지(單) 일은, 女(字)가, 女性의

이점(單)을, 女(字)가, 口實으로
理由의 根據가 되지는 女性速記士
도 되지 않았어 있다는 原因, 二

다면, 女(字)가, 廣義上 理由士
가 勿論 勿論 勿論 勿論
그러나, 天生 寺理 論理를
시 男(字)가, 勿論 勿論 勿論

△ 終 結
인(字)가, 終 結 勿論 勿論 勿論
안을, 勿論 勿論 勿論 勿論
人生사(字)가, 勿論 勿論 勿論

隱(字)가, 世(字)에, 勿論 勿論 勿論
隱(字)가, 勿論 勿論 勿論 勿論
하고, 勿論 勿論 勿論 勿論 勿論

服(字)가, 勿論 勿論 勿論 勿論
그러나, 勿論 勿論 勿論 勿論
아(字)가, 勿論 勿論 勿論 勿論 勿論

他(字)의 天(字)에, 勿論 勿論 勿論
보(字)가,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男(字)에, 勿論 勿論 勿論 勿論



消息 (學院當局에서 알리는 말씀)

이제 우리 速記學徒의 唯一한 學報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학생은 물론 동진 교육생이나 졸업생들의 상호 친목에 적으
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면을 대신하고 더욱 아
름 담게 꾸며 보려고 하니 각자는 수시로 '하고 싶은 말', '이내 職
事' 또는 기타 공간에서 들리는 '速記界에 대한 얘기' 등을 적어 보내
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最近 速記學을 研究하고 已년의
모습을 改裝하여 現在의 우리나

黃 鵬 杜



다에 速記學의 新々 なる 功을
불러 우리로서는 勿論 보람이
을 甚히 맛보는 바이다
速記學의 利點은 圖及精神 富
의 基礎가 되고 團及精神은 團
民文化의 基礎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民族이나 他民族은
該論하고 다른 學術보단 特殊性
을 가진 斯學은 研究 普及하는
것이 當先인 現實을 생각하여

國家나 社會에서 多方面으로 要
請되는바 心理的으로 王冠 高成
로 發展되어야 할 것이니
이것은 소위 우리國民이 社會
生活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란
學術也 故로 社會의 要求는 民
族의 過半인 가람이다
그리 範圍은 여러 文化의 基礎
적인 指導로 速記學의 發展은
漸次 進歩를 보이고 있는 實也

이다. 이 發展 途上에 效는
速記學을 正確 迅速하게 習
止시켜 研究을 거듭하고 習
이 普及시켜 先進國에게 匹
敵할 수 있는 能率을 獲得하
여 韓國의 文化에 燦爛의 光
을 發하게 進歩를 望하는 바
이다
이 點에 趣味에서 非才
를 示願하고 新學에 速記學

★ 바뀌야겠어 ★



을 專攻하며 3리는 實地에서
 牙를 傾注시키 한다 斯界 遠
 征의 本陣은 廣學院은 여러
 先生의 能氣가인 教育方針과
 熱誠의 心 여러 先輩들의 卓識과
 知能으로 遠征界에 안보은 必
 明이 必을 專攻로 權信하는 바이며
 尙少는 나의 證覽으로 隨記學徒
 의 心算으로 參與하게 됨을
 衷心으로 感謝하며 微力이나
 나의 筆蹟 先生의 眞意와 先
 賢의 指針을 받아 國家의 社
 會에 爲하여 어디까지라도 盡
 任을 愛國志 愛情과 力을 加
 서야 하며 隨記士가 되면 加一層
 나의 精力을 傾注하여 遠征界의
 報答은 國謀와는 同時 여러 先輩
 들의 偉大는 愛國志 愛情과 圓
 熟의 技를 爲하여 一途 遠征 志氣
 을 나의 志氣로 하는 바이다
 隨記의 志氣는 隨記의 實地에서
 는 百가지 經驗보다 十가지 實
 地의 經驗을 得는 道이다

隨記士 一七三 勤勞 誠實 忠
 誠의 心을 加하여 爲하고 相
 對를 得는 道는 必은 必은 親切
 溫和한 것이니 隨記를 担當하
 여야 하는 道는 勤勞 誠實 忠
 誠에 正當 口實을 期할 것이니
 虛荒 放散에 心을 一掃하고 團
 圓의 社會의 心算에 特筆을
 得는 道는 必은 必은 必은 必은
 다
 그렇으니 自二의 責任感을
 充分히 擔當하여 나 爲하고
 團圓의 社會에 自己의 責任을 盡
 任을 愛國志 愛情과 力을 加
 서야 하며 隨記士가 되면 加一層
 나의 精力을 傾注하여 遠征界의
 報答은 國謀와는 同時 여러 先輩
 들의 偉大는 愛國志 愛情과 圓
 熟의 技를 爲하여 一途 遠征 志氣
 을 나의 志氣로 하는 바이다
 隨記의 志氣는 隨記의 實地에서
 는 百가지 經驗보다 十가지 實
 地의 經驗을 得는 道이다

가야 志氣이며 自己의 實力을
 充分히 擔當하여 나 爲하고
 團圓의 社會에 自己의 責任을 盡
 任을 愛國志 愛情과 力을 加
 서야 하며 隨記士가 되면 加一層
 나의 精力을 傾注하여 遠征界의
 報答은 國謀와는 同時 여러 先輩
 들의 偉大는 愛國志 愛情과 圓
 熟의 技를 爲하여 一途 遠征 志氣
 을 나의 志氣로 하는 바이다
 隨記의 志氣는 隨記의 實地에서
 는 百가지 經驗보다 十가지 實
 地의 經驗을 得는 道이다

人間은 時間!
 格
 生은 苦 死는 覺醒!

사 - 강 - 손

우리들은 속기를 배워 제법 쓴다고 자부도 하였지 그래 자년
 부터 선제가 「대한속기학술협회」에서 시행 한다는 속기경연대
 회에 나가려고 했지 않았나 그럼데 그후 소식이 없었던 서지된
 영문인지 몰라 ---
 그리고 보니 말만 앞세울게 아닌 모양 이드군!



速記過程을 마치고

洪 性 培

速記란 우리 文化發達에도움이
된다 하여도 過호는 아닐 것이며
이것을 막아서 妨호으로 吸
收되는 弊호素가 될수 없지만
世人은 恒時이 速記文化를 贈
禮하고 等待하는 될수 없으며 避
하라는 諷호를 느낀다 그러나 나
는 이 贈禮하고 等待하고 避하리
는 文化호에서 살고 안어긴 것
이 昨年 五月이다 勿論 나의 心
算이 恒時이 速記文化호에서

라고 謂호되 欲
했으며 正호의 素
質에도 達호는 모
음이다 若호先 나가
저음 學호에 入學
했을 때는 이미 百호
가 가까운 學호의 入
學호에 관호 研究
케 되었는미 나는
次호前 難호호는 甚호
難호호 부어 이리한 難
을 들었었다 而호 速記
學호의 利호 易호한
點호도 數호호보다도 어렵다
正호 速記호의 難호호는 比較호의 難호
내 이 難호를 들었는데 速記호의 難호
이 있다 勿論 世人이 贈禮하고
等待하고 避하리라는 것도 上호 學
原因호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
는 이 어려운 科호目호와 外호에서
學호의 이간수 欲호가가 나의 心
算호의 있다 그러나 도호도 努力
科호에 不可호能호호는 欲호호지아는

是호는 倥호倉호下호에서 學호時호 嚴호酷호의 難
苦호에 耐호하야 하는 事호이다 而호 이 難호 苦
苦호고 보니 果호然호 速記호의 利호 易호
點호는 學호의 利호 易호를 느낀다
正호 速記호를 學호하리던 爲호先 호
力호도 必호須호條件호의 하나이 되지만
空호惚호力호의 切호實호의 必호要호 하나도 缺호
缺호호였다

나는 原호來호가 그리 뛰어난 頭
腦호는 沒호가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難호苦호 學호는 學호는 學호하리던 爲호先 호
力호도 必호須호條件호의 하나이 되지만
空호惚호力호의 切호實호의 必호要호 하나도 缺호
缺호호였다

그날에 完호全호의 利호 易호호는 程호度호
되고보니 尤호히 이리하다 보다
쉬운 利호 易호호였다 次호 此호 利호 易호호는
커가며 而호 難호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利호 易호호를 느끼기며 學호하리라는 것
이 永호스리 持호續호할수는 欲호호다
時호日호의 變호遷호호는 學호하리라는 것
을 그날 完호全호의 利호 易호호할수 없
은 程호度호가 되고보니 느끼기 보
나 德호意호를 느끼지 欲호호는 것이
多호半호이었다 如호前호의 努力호는 程호度호
이다 學호에서나 기호를 進호步

한미 수 利호의 利호 易호호는 程호度호
의 利호 易호호를 느낀다 速記호의 利호 易호
點호는 學호의 利호 易호를 느낀다
正호 速記호를 學호하리던 爲호先 호
力호도 必호須호條件호의 하나이 되지만
空호惚호力호의 切호實호의 必호要호 하나도 缺호
缺호호였다

나는 原호來호가 그리 뛰어난 頭
腦호는 沒호가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難호苦호 學호는 學호는 學호하리던 爲호先 호
力호도 必호須호條件호의 하나이 되지만
空호惚호力호의 切호實호의 必호要호 하나도 缺호
缺호호였다

그날에 完호全호의 利호 易호호는 程호度호
되고보니 尤호히 이리하다 보다
쉬운 利호 易호호였다 次호 此호 利호 易호호는
커가며 而호 難호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利호 易호호를 느끼기며 學호하리라는 것
이 永호스리 持호續호할수는 欲호호다
時호日호의 變호遷호호는 學호하리라는 것
을 그날 完호全호의 利호 易호호할수 없
은 程호度호가 되고보니 느끼기 보
나 德호意호를 느끼지 欲호호는 것이
多호半호이었다 如호前호의 努力호는 程호度호
이다 學호에서나 기호를 進호步

★(高麗)速記(同門會)々則★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會는 高麗速記同門會(以下本會라 함은) 라고 稱한다

第二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 高麗速記學院(以下本院이라 함은) 內에 設치고 必要한 地域에 遷移할 時는 豫先 豫定한다

第三條 本會는 高麗速記術을 習得한 者를 爲體로 會員을 收입하고 會員相互의 親睦과 增進을 圖할 爲기 本式 章程의 發布에 上에 實效을 期한다

第二章 會員

第四條 本會의 會員의 資格과 權利義務은 如하와 같다

1. 資格 本會의 會員은 高麗速記術을 所學한 者를 限하여 本式 章程을 習得한 者中 本院에서 實效을 認定한 者를 限하여 加入할 權을 有한다 若한 限한다

2. 權利義務 本會의 會員은 會則을 遵守하고 總會 및 任員會에서 議決한 事務를 執行할 權을 有한다 此外 本會의 會費를 納付하고 此外 各任員의 職務를 代理할 權을 有한다

第三章 會費

第五條 本會는 總會와 任員會를 設치고

會期總會는 每年 四月中에 會費의 徵收을 爲한다 但 會費의 徵收은 徵收前 徵收後의 徵收을 以하여 徵收前의 徵收은 徵收後의 徵收을 以하여 徵收한다

第六條 總會 및 任員會의 職能은 如하와 같다

1. 總會의 職能

2. 會則의 改定

3. 任員會의 選出

4. 總務事務의 計劃과 報告의 受理

5. 會員의 定數事務의 議決

6. 其他 重要한 事務의 議決

7. 任員會의 職能

8. 一般事務의 執行

9. 總會에서 委任한 事務를 處理

第七條 本會의 任員은 總務을 다스리는 爲기 會則을 以하여 選出한다

但 補選은 任員의 任期가 滿了한 後에 補選한다

1. 名譽會員 本會를 協助할 爲기 選出한다

2. 會長 本會를 代表하고 任員을 指導할 權을 有한다

3. 副會長 本會를 補助하고 會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4. 總務 本會의 總務을 處理하고 其他 重要한 事務를 處理한다

5. 幹事 本會의 事務를 處理하고 各期生의 連絡을 維持한다

第八條 本會의 會費는 會費로 徵收하고 徵收한 會費를 本會의 經費로 用한다

但必要時發通知之 依多數之利 可會者十 議決을 總布 於 之 時 可 否 同 教인 場 通 於 之 可 會 者 外 使 也 也

第 四 章 財 政

第 九 條 本 會 之 總 務 及 會 員 之 入 會 金 其 會 費 以 贊 助 金 爲 之 元 始 也 也

第 十 條 本 會 之 會 費 以 入 會 金 爲 之 元 始 也 也
一 入 會 金
會 員 之 入 會 金 爲 參 百 圓 至 五 百 圓 也

二 會 費 徵 收
會 費 是 每 月 徵 收 百 圓 式 附 入 會 金 也

第 十 一 條 本 會 之 目 的 及 會 員 之 特 殊 性 會 費 以 是 七 會 員 之 任 務 會 員 之 議 決 及 總 會 之 承 認 爲 之 元 始 也 也

第 十 二 條 本 會 之 會 員 以 故 意 爲 本 會 之 名 譽 者 污 濁 其 名 也 本 會 之 所 定 規 則 中 應 予 以 處 分 者 於 是 應 予 以 處 分 也

第 十 三 條 本 會 之 規 則 之 改 正 是 總 會 之 行 務 也 在 總 會 員 之 三 分 之 二 以 上 之 贊 成 下 是 其 元 始 也 也

第 十 四 條 本 會 之 規 則 之 改 正 是 總 會 之 行 務 也 在 總 會 員 之 三 分 之 二 以 上 之 贊 成 下 是 其 元 始 也 也
此 副 會 長 之 會 務 是 由 總 會 之 副 會 長 之 宣 布 而 是 其 元 始 也 也

第 十 五 條 本 會 之 規 則 之 改 正 是 總 會 之 行 務 也 在 總 會 員 之 三 分 之 二 以 上 之 贊 成 下 是 其 元 始 也 也

第 十 六 條 本 會 之 規 則 之 改 正 是 總 會 之 行 務 也 在 總 會 員 之 三 分 之 二 以 上 之 贊 成 下 是 其 元 始 也 也

第 十 七 條 本 會 之 規 則 之 改 正 是 總 會 之 行 務 也 在 總 會 員 之 三 分 之 二 以 上 之 贊 成 下 是 其 元 始 也 也

